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축원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시킬 수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공동체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고 밝히는 생명체적인 사랑의 말씀의 거룩한 보전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장 1절-2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5월 31일 (토) 제 1485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제38회 정기총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38회 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

### 총회장 정관일 목사, 부총회장 김영수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엄영민 목사) 제38회 정기총회가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막16:15)이라는 주제로 5월 20일부터 3박4일 동안 캐나다 토론토 공화 매리트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목사 총대 226명과 장로 총대 16명 등 총242명이 등록했다.

첫날 개회예배는 총회장 엄영민 목사의 사회로, 기도 문경두 목사(수도), 성경봉독 이준우 목사(가주), 찬양 가든교회 할렐루야성가대, 설교 부총회장 정관일 목사(“마지막 때 우리의 할 일”, 막16:15), 광고 고택일 목사(서기), 축도 전덕영 목사(뉴잉)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김성일 목사(로스)의 집례로 성찬예식이 진행됐다.

첫날 오후 8시30분부터 회무처리가 진행됐다. 회원호명과 총회장 엄영민 목사의 개회선언 후 캐나다 노회 최영철 노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이어 서기의 절차보고 후 고시부는 목사고시 응시 35명(한여권 23, 영여권 12)중 34명이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임원선거는 노회장들로 구성된 공천부(부장 이용걸 목사)의 공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의됐다.

△총회장 정관일 목사(캐나다노회, 가든장로교회) △부총회장 김영수 목사(중남미노회, 사랑의교회) △서기 최동진 목사(남가주) △부서기 한세영 목사(워싱턴DC) △회록서기 김성득 목사(중부) △

부회록서기 양수철 목사(가주) △회계 김용생 장로(뉴욕) △부회계 민제기 장로(뉴욕남노회).

둘째날은 새벽기도회(설교: 김재열 목사, 뉴욕중부교회)에 이어 오전에는 공천부 보고, 상비부 조직보고, 총무 보고,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사보고가 진행됐다. 오후에는 총회 호스트인 캐나다노회가 준비한 현지 관광이 있었으며 저녁식사 후 세계 선교회(회장 이용걸 목사)가 주최하는 선교의 밤과 선교사 파송식이 열렸다.

KAPC 세계선교회는 현재 100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이번에 김종현 목사(남아공), 조성주 목사(일본), 장성국 집사(북방야역) 등 세 가정을 추가 파송했다.

이어 총대들은 한국 예정합동 총회장과 부총회장이 KAPC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이따자들의 총회에 참석했다며 총회의 조치를 요구했다. KAPC 총회에는 서기만 참가했다. 직전 총회장 엄영민 목사는 “총회적으로 단호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합동축의 모습은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전임 총회장들



총회장 정관일 목사



부총회장 김영수 목사

로 구성된 교단발전상임위원회(위원장 천성덕 목사)에 맡겼으며, 교단발전상임위는 한국 합동총회에 유감표시의 서한을 보내기로 결의했다.

또 공천부의 완전 보고와 현의부의 보고를 받았다. 또 NAPARC의 현장 및 내구 수정을 받아들였다(박성일 목사 보고). 한편 신학부는 보고를 통해 미주 교신의 NAPARC 가입정원을 받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또 TNIV성경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3면으로 계속)



2면  
벼랑 끝에 내몰린 교회성장, 그러나 성장의 동력은 남아있다!

### 기독교인 TV시청, 일반인보다 많다!

#### 바나리서치, 2014 미국인들 TV시청에 관한 설문조사

2차 대전 후, TV는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매체로 발전하여 선거와 국민들의 삶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사실상 거의 모든 미국 가정(1994년 기준 9천7백만)이 최소한 1대의 TV를 소유하고 있으며 65%는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집, 직장, 차 안에서 하루 평균 8시간 정도를 인쇄 및 전자 매체와 함께 보낸다. 각 매체별로는 TV시청에 4시간, 스마트폰이나 아이팟, 위성 라디오 청취에 3시간, 음악 감상과 신문 읽기에 각각 30분을 소모한다.

바나리서치는 해마다 미국인들이 TV에서 무엇을 보

는 것을 설문 조사해오고 있다. 올해 역시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미 전역에서 성인 1,024명을 대상으로 세대별로 무엇을 TV를 통해 보는지를 설문조사했다(What Americans Are Watching in 2014, 95% 신뢰도, +/- 3.1 오차율). 그 결과 이제는 60인치 LCD TV로만 드라마나 음악 방송, 스포츠 중계 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이용해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 중 버라이어티 리얼리티 쇼들(American Idol, The Amazing Race, Dancing with Stars)을 즐겨 보고 있었다.

미국인들 중 3/4은 날마다 TV를 시청한다. 하루에 3시간 정도를 보는 사람들은 51%, 4시간 이상 보는 사람은 44%, 그리고 5시간 이상을 보는 사람들은 30% 정도에 달한다.

평균적으로, 여성들(3.4시간)이 남성들(3.0시간)보다 TV에 더 빠져든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TV와 벗삼는 시간이 많아진다. 속설처럼, 69세 이상의 ‘엘더스’는 하루에 4.4시간을 보고 있고, 1946-1964년 사이에 태어난 ‘부머스’들은 3.8시간, 1965-1983년 사이에 태어난 ‘젠-엑세스’와 1984-2002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엄들은 각각 2.5와 2.7시간을 TV와 함께 한다.

놀랍게도 이번 설문에서 드러난 사실은 바로 크리스천들이 비 크리스천들보다 TV를 더 많이 보고 있다는 점이다. 개톨릭교인들이 평균 3.5시간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3.1시간으로, 비 크리스천이나 다른 종교인들이 평균 각각 2.6, 2.7시간 씩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TV 시청과 주일 예배 출석과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즉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인이나 그렇지 않은 교인들 모두 평균 3.2시간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TV를 통해 보고 있는가?

일단 ‘시트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친구들(Friends)”이 십여년 전부터 부머스와 젠-엑세스들에게 인기를 얻은 것처럼, 2014년에는 “빅뱅이론(The Big Bang Theory)”이 놀랍게도, 모든 세대들을 아우르는 시트콤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빅뱅 이론은 미국 CBS에서 방송 중인 시트콤 드라마로, 2007년 9월 24일 첫 방송이 시작돼 2014년 5월 20일까지 총 6시즌, 124회 분량이 방송됐다. 동 드라마 시즌3가 2009년 9월 21일 첫 방송되자, 미국 전역에서 1283만명이 시청하면서 쇼 역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했고, 빅뱅이론은 CBS에서 18세-49

세 연령층의 시청률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 됐다

범죄수사물 역시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바로 “NCIS”로, 미국 해군과 해병대에 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해군 범죄 수사국의 특수요원 팀을 배경으로 하는 수사물 드라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CBS 방송국에서 시즌11이 방영 중이다. 이 드라마에 빠져든 사람들은 세대를 초월해 40%의 엘더스, 31%의 부머스, 17%의 젠-엑세스 그리고 17%의 밀레니엄들이 즐겨 보고 있다. 동일한 장르의 “CSI(Crime Scene Investigation)”는 미국 CBS에서 방영되고 있는 과학수사 관련 텔레비전 드라마로, 2000년 10월 6일부터 방영되기 시작했다. (3면으로 계속)



5면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김혜천 목사(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13면  
선교의 창전호진 박사 송중록 박사(대학선교, 수필가)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 2015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5년 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유 료 광 고 안 내	돌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15.5 × 2.8cm		\$250.00		
돌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 료 리 스 팅 신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세요.



시론

우분트!(UBUNTU)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혹시 우분트(UBUNTU)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한 부족의 아이들에게...

우리는 모두 다 다릅니다. 성도, 이름도, 자라온 환경도, 직업도, 배움도, 경험도, 성격도 같은 거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났습니다.

린다 & 리처드 에어 부부의 "자연에서 배우는 행복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여러 가지 자연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갑니다.

"우분트의 마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영연의 만남" 그리고 그 안에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와 칭찬과 격려"는 나와 주변의 마음과 영혼을 살리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 감사와 은혜가 채워집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교회성장, 그러나 성장의 동력은 남아있다!

리더십저널, 클리프사이드교회의 성장과 자체위협 간 긴장해소방안 소개 (3)

2년에 걸친 기금 마련과 시공을 마치고 드디어 새 예배당이 완공됐다. 주 경계 지역에 자리 잡은 새 성전은 새들백교회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규모를 자랑했다.

새 교회에서 성공적인 입당예배를 드린 후, 감사 인사를 건네려고 열심히 둘러봤지만 팀이 보이지 않았다. 결혼생활의 문제가 재발한 것 같았다.

"멋지네요." 릭이 대답했다. "굉장히 크고요." 새 의자는 어떠세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스페인어 예배를 중단하는 겁니다. "메이슨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팀, 교인의 30%를 그냥 포기하라는 겁니까?"



팀이 대답했다. "성경에서 뭐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재정적으로 뭐가 옳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회의는 점점 파행으로 치닫더니 결국 팀이 논쟁을 포기하고 뛰쳐나가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파로 대니의 보험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대니의 사무실 앞 주차장이 자동차로 가득 차 있었다.

메이슨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대니의 주차장 이야기를 했다. 아내가 메이슨을 잠깐 쳐다보더니 말했다. "교인들이 거기서 비밀모임을 하는 것 같아요."

메이슨은 대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메이슨은 메시지를 남겼다. "대니 형제, 메이슨입니다. 지금 회의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요?"

메이슨은 회의 장소로 들어가 주

새 예배당 완공 후 재정문제 봉착 당회와 갈등으로 사임 압력 받아

편안하고 좋으시죠?" 릭이 시선을 떨어뜨리더니 대답했다.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리시겠지만, 예전의 점의 자가 많이 그림습니다."

"맞아요. 저도 새 의자가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하지만 그 점의자에 특별한 추억이 많거든요. 처음 구원받을 때도 그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 당회 때는 갈등이 더 고조됐다. 은행에는 아직도 부채가 상당 금액 남아 있었는데, 새 성전에 입당한 후에도 기대만큼 헌금이 늘지 않았다.

프랭크가 팔짱을 끼며 빈정거렸다. "내 이럴 줄 알았습니까? 대니가 쏘아붙였다.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면 뭐합니까? 얼른 해결책이나 찾아봅시다."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십일조 내는 교인들이 돌아올지."

메이슨은 팀과 대니가 시선을 교환하는 것을 포착했다. "팀 목사님의 의견에 일리가 있어요." 대니가 말했다. 메이슨은 기가 막혔다.

팀이 얼른 끼어들었다. "진정하세요.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나쁜 감정은 없으시잖아요. 그냥 교회 정책과 관련된 의견 대립일 뿐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건지는 아십니까? 교회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다음날 팀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어지는 몇 주 동안 메이슨은 상황이 점점 정상화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팀의 사임으로 마음고생도 심했지만, 재정적 위기는 어느 정도 완화된 듯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메이슨은 댄스 교습을 마친 딸아이를 차에 태워 돌아오다가 대니의 보험대리점 사무실을 지나게 됐다.

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프랭크가 대답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클리프사이드가 더 이상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거죠."

메이슨이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데요. 당시 친구들이 많이 떠났다는 뜻이겠죠." 그는 대니 쪽으로 몸을 돌렸다.

"팀 때문에 이러시는 겁니까? 스페인어 예배 때문인가요?"

(3편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L.A. and N.Y. offices and a subscription form.

Large advertisement for Midwest University, featuring the university name, founding year (1986), website (www.midwest.edu), and details about degree programs (ESL, Bachelor, Master, Doctoral) and study options.

# 총대 242명 참석...목사고시 34명 합격

(1면에서 계속)

이러진 신학교 보고에서는 '국제 개혁신학대학/신학대학원'은 이탈 총회가 주장해 이름이 가쳐분 신청돼 있다며, 임시로 '개혁장로회대학교/신학대학원'(총장 황은영 목사, 이사장 양수철 목사) 이름으로 보고했다. 현 의부와 고시부 보고가 이어졌으며, 총회신학교 그리고 세월호 피해자들과 투병중인 전임 총회장들(장영준 목사, 김용천 목사)을 위한 통성기도로 둘째 날 집회를 마감했다.

셋째 날 오전 회에서 기존의 감사 이기훈 목사와 허윤준 목사 외에 지역배분 원칙에 따라 새로운 감사로 서부의 조영철 목사를 선출했다. 또 37회 총회 총수입 303,237달러, 총지

출 251,863달러, 잔액 51,374달러를 보고했다.

신학부는 한국 예정개혁총회가 "인터담 선교회 지도결과 보고 및 재심 청원의 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통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가 2년 전에 내린 "인터담의 선교정신과 사역은 우리교단이 표명하는 개혁주의 정신에 위배되며, 탈교회적이고, 반지성적, 반이성적이므로 교류를 금한다"라는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재문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외에 △남가주노회가 KAPC 명칭 불법 사용자에 대한 가쳐분 신청, LA중앙노회가 총회 면직자들과 이탈자들이 총회 명칭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조치 등 2가지 현안을 하나로 묶어 허락했다. △뉴욕노회가 청원한 뉴저지 지역 노회분립 안을 허락했다. 스캐나다 노회의 '목사 장로 시무 70세 정년제의 건' 현안은 헌법에 맞지 않아 기각됐다. △뉴잉글랜드노회가 낸 총회 정상화를 위한 기구조직은 허락하고 엄영민 목사 등 5인으로 구성된 기구를 통해 강은 대처를 동시해 해나가기로 했다. △서가주노회 정상화 건은 서가주노회를 회복하기로 하고, 성산교회가 속한 그룹은 서가주노회, 다른 그룹은 동가주노회로 하기로 했다. △교단탈퇴 시 교회 재산의 보호가 미흡한 바, 규칙부에서 1년간 교회 재산권과 관련해 교회-노회-총회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

고 보고하기로 했다.

관심사였던 뉴욕서노회 분열사건은 수습위원을 파송해 수습하도록 하고, 위원으로는 임시부 부장 조영길 목사와 서기 이원호 목사 등 2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뉴욕서노회가 청원한 뉴욕장로교회 PCA교단 가입 불법성을 항의하는 서한을 NAPARC, PCA교단, 뉴욕장로교회 등 3군데에 발송하기로 했다.

오후 11시까지 모든 회무처리를 마치고 폐회했다.

한편 이번 총회 사절단으로 한국에서 예정활동 임원들, 합신 총회장 이주형 목사 일행과 개혁 총회신학교 이사장 장근태 목사 등이 참석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는 현재 30개 노회, 545개 교회, 47,419명의 세례교인이 등록돼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 원로칼럼



박중순 목사 (총신교회 원로)

### 동역(同役) 윤리

"담임 목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 담임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교회가 부흥되지 못한다." 지당하고 옳은 말씀이다. "담임 목사가 왜 감사 말을 안 듣느냐. 내가 전세계를 다 돌아다니지만 이렇게 뻣뻣한 목사는 처음이다. 담임 목사가 제대로 되어야 교회가 바로 되는 법이야." 이 대목부터 문제가 꼬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상황은 그다지 크지 않은 교회에 부흥회 인도 차 온 자칭 거물 강사가 담임 목사를 두고 단진 말들이다. 그것도 교인들이 듣고 보고 있는 집회 도중에 한 말들이라니 기가 찬다.

어느 교회나 부흥회라는 연례행사를 갖는다. 강사로 초빙 받아 가보면 담임 목회자가 강사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고, 누가 강사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다. 부흥회나 사경회는 연례행사이면서 교회성장과 신앙성숙을 위한 훈련기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부흥회를 개최하는지 목적도, 준비도, 진행도, 허술한 경우들을 보게 되면 한심스러울 때가 있다.

그런가 하면 강사로 초빙된 사람의 경우도 각각양색이다.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도취, 자기 교회 자랑으로 도배질하는 사람, 본 교회목회자를 노리려(?)처럼 취급하는 사람, 반말, 비속어, 상스러운 언어로 강단 언어를 흐리는 사람, 인기몰이에 나선 사람, 관중다 싶은 사람 명단 작성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삶, 담임 교역자 몰래 일 꾸미는 사람 등 별별 사람이 많다.

리더는 피해의식에 빠지는 것도, 자기 교만에 빠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솔직히 말하면 교회가 크다고 목사도 큰 것은 아니다. 교회가 작다고 목사도 작은 것은 아니다. 교회가 크다고 힘줄 필요도 없고, 작다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다. 유명해졌다고 거드름 피워도 안되고, 무명하다고 피해의식의 포로가 되어도 안된다. 크다고 작은 것을 얹잡아도 안되고 작다고 큰 것을 매도해도 안된다.

큰 나무 밑에 모여 살던 작은 나무와 잡초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하루빨리 큰 나무가 폭풍에 쓰러지거나 벼락을 맞아 꺾이는 것이었다. 그야 자기네 영역에 찬란한 햇빛이 들게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어느 날 밀어닥친 폭풍에 거목이 뿌리째 뽑히게 되었다. 문제는 그날 거목 아래 머물던 작은 나무들이며 잡초들이 모조리 깔리고 짓이겨졌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공존과 동역의 윤리가 필요하다. 작은 나무와 잡초들은 수분 공급원이 되어주는가 하면 큰 나무는 작은 나무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준다. 이러한 공존상생의 윤리를 외면하기 시작하면 상생, 갈등, 분열의 폭풍이 일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유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약자에게는 겉잡기 힘든 약자 콤플렉스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강자가 약자를 돌보고 한 발짝 물러서는 여유를 보여야 한다. 약자와 작은 자의 투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강자는 언제라도 약자의 나락으로 내려갈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굴러 떨어지는 광음은 작은 것보다 큰 것일 때 크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당신은 큰가, 강자인가, 유명한가, 그렇다면 낮추라, 겸허하라, 그리고 조심하라.

## 기독교인 TV시청, 일반인보다 많다!

(1면에서 계속)

2013년 9월부터 시즌14가 방영되고 있는데, 이 드라마 역시 전 세대를 통틀어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공포/호러물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좀비로 세상의 종말을 다룬 '워킹데드' 드라마는 조지아 주의 보안관 릭이 벌인 겁겨 중 총상을 입고, 한동안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가 깨어보니 세상은 좀비사태

향을 따라하고 있지만 NCIS(25%), The Big Bang Theory(23%), CSI(20%), Dancing with the Stars(16%)순으로 크리스천들이 즐겨본다.

한편 과거에는 TV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미국인들의 전통적인 방식이었다. 1980년대에는 5천만 이상의 미국인들이 매일 저녁 TV를 보며,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TV채널보다 더

따라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TV보다는 인터넷 와이파이를 이용한 정보 습득이나 연예물 시청에 진취해지고 있다.

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TV시청에 익숙하다. 그러나 더 이상 TV가 정보를 제공하는 독점 수단인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TV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나 문화 콘텐츠에 만족하는 노년층보다는, 스스로 인터넷을 이용해 유용한 정보들을 찾는 젊은 세대들이 증가하고 있다.

드라마 역시 실시간에 시청하지 않고 다운로드해 여가시간에 한 번에

해서 TV중독 증세를 '카우치 포테이토 신드롬'(Couch Potato Syndrome)이라고 부른다.

지난년 TV시청 문제를 신드롬으로까지 표현할 정도로, 미국에서는 TV시청이 문제가 돼왔다. 즉 TV 프로그램의 질보다 과다한 시청시간에 인생의 참의미가 희생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TV를 지켜보는 시간은 가족이 한 자리에 있어도 가족간 대화는 사라지는 죽은 시간이다. 게다가 TV시청에 따른 불면증, 우울증, 비만, 시력 저하, 소비욕 자극, 공격성 촉진, 대인관계나 개인과 가족 더 나

## 성인 절반이 하루 3시간 시청...기독교인은 3.1시간으로 되레 많아 정보습득은 TV 52%, 인터넷 54%...케이블TV, 스마트폰, SNS 순

로 헬게이트가 열려있다는 스토리가 전개된다. 처절한 서바이벌의 묘사보다는 생존자들의 멘탈 붕괴,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간사에 주 초점을 맞춘 좀비물인데, 이 드라마에는 유독 26%의 밀레니엄들과 18%의 젠-X세대들이 빠져들어 있다. 다른 공포물(American Horror Story, Game of Thrones) 역시 밀레니엄들이 즐겨 보고 있다.

크리스천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엘더들이 즐겨보는 경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가 되고 있다. 54%의 미국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고, 52%는 TV를 통해 매일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인 중 50%가 매일 케이블TV를, 43%는 스마트폰을 통해, 39%는 SNS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매체인 라디오(40%), 신문(25%), 책(17%), 잡지(8%) 등은 점점 더 약세를 보이고 있다.

물라 보기도 하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드라마들을 선별해 보고 있다. 그러나 TV가 아직까지는 과거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옛날처럼 동시시간대에 수천만 명의 시청자들을 TV앞에 앉게 하지는 못하지만 아직까지 TV는 미국인들이 동시에 쟁쟁이나 이슈들을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매체로서 건재 한다.

결론으로, 미국에서는 소파에 길게 드러누운 채 감자튀김을 먹으면서 종일 TV를 보는 일로 시간을 죽인다고

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통계상 미국 가정은 99%가 최소한 한 대 이상의 TV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이고, 아마도 TV가 없는 집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현대인은 TV에 완전 포위돼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다. 여기에 인터넷을 통한 스마트폰, 아이패드 안에 우리는 완전히 갇혀있다.

## 벼랑 끝에 내몰린 교회성장, 그러나 성장의 동력은 남아있다!

(2면에서 계속)

"전부 다 문제입니다." 대니가 말했다. "교인들이 목사님을 더 이상 리더로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도입하신 그 모든 변화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메이슨이 그를 쳐다보았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클리프사이드를 남부의 새들백교회로 만들어달라고 하

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대니가 대답했다. "하지만 전 교인의 DNA를 바꿔달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메이슨은 깜짝 놀랐다. 적절한 답변이 떠오르지 않았다. 마침내 메이슨이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당회 결정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는 일은 추진한 적이 없어요."

프랭크가 헛기침을 했다. '뭐, 항상 만장일치였던 건 아니지.' 메이슨은 생각했다. 그들은 잠시 더 대화를 나눴다.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메이슨은 배신을 당한 기분이 들었다. 대니가 장로들이 함께 작성했다면서 문서를 한 장 내밀었다. '사실확인서'(Statement of Fact)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대니가 말했다. "이 문서에 목사님의 리더십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는 목사님을 좋아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상황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씩 기도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목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메이슨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 대니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저희는 목사님의 사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 믿고 맡길수 있는 「하나님의 학교」 N.J. United Christian Academy 중·고등학교 (6학년~12학년)

당신의 자녀를 책임지고 훌륭하게 크리스찬 리더로 키우겠습니다. -NJUCA 교사 일동-



개교 10주년을 앞두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훌륭한 크리스찬 미래 리더들을 좋은 대학에 많이 입학시키고 있습니다.

NJ 크리스찬 아카데미 수양관도 새로운 시설과 서비스로 성도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약을 서둘러 주세요

### NJUCA 교육의 특징

- 기독교 교육 이념에 기초한 지성(IQ), 감성(EQ), 영성(SQ) 교육
- 헌신적인 교사들에 의한 친밀한 학생관리 및 상담
- 특별활동 및 봉사활동을 통한 이타적인 인재 육성
- SAT, TOEFL 수업을 통한 명문대 진학 준비
- 한식과 중국식 음식을 제공하는 기숙사 환경

### 2014~2015학년 신입, 편입생 모집 중

- 대상 : 6th ~ 12th
- 인원 : 각 학년별 약간 명
- 전형 : 서류 및 인터뷰
- 개강 : 2014년 9월 5일
- 특징 : 국제 유학생에게 정식 I-20 발급

문의: (609)954-2900, (609)713-2121(영어)  
www.njuca.org  
73 Holmes Mill Rd. Cream Ridge, NJ 08514

###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 세월호 침몰의 교훈

하나님을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느끼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물론 인격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대화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도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기도 또 행하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대화술은 다양하다. 우리 양심을 통해서 선악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 소리 없이 말씀하시기도 하신다. 죄성 때문에 그 하나님

의 음성을 알아듣지도 못하게 되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셨다. 그 육체를 입고 오신 성육신은 하나님이 가장 친밀하게 교감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길이 진리요 생명이니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화는 그것이 전부 아니다. 자주 하나님이 우

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인데 사건과 고난이라는 말씀도 있다. 하나님이 조용히 역사와 자연양심 그리고 성경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도 알아듣지 못할 때에는 고난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고난을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하기도 한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된 행실을 고치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고난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게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한국의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이 받지 못하는 새로운 교훈을 받아야 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으며 그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뜻밖에 해상에서 만난 일을 보여주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전원이 다 목적이에 도착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이 세상을 항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 돌아보게 된다. 여기서 하나님이 금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우선 지도자의 사명감에 대한 말씀이다. 사명감이 투철한 사도바울이 드러난다. 보시라!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276명이 함께 타고 가던 배가 좌초당하여 다 죽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거꾸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돌려 감는가 하면 배의 연장을 들고 모든 짐까지 바다에 내던지기도 심하여 사흘째 되던 날에는 배의 기구들까지 다 바다에 풀어버렸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치는 선원들을 보자 혹독하게 꾸중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먹어야

산다고 떡을 나누어 주는 사도바울의 헌신적인 인격이 돋보인다. 그동안 시달리며 굶주렸던 사람들이 안심하고 떡을 받아먹더니 끝내 한 명도 죽지 않고 무사했다. 사도바울은 지도자로서 절명의 위기에서 사명감이 투철했다. 진심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잘 섬겼다. 그런데 세월호의 선장은 근무시간의 반절 이상을 침실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가 하면 급박한 상황을 알아차리기도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만 살라고 도망쳐 나왔다. 그런 사람을 믿고 476명의 생명이 올라탄 것이다. 나를 선장으로 믿고 온 몸을 맡기고 올라탄 사람들을 생각해야 하고 침몰의 위기에서는 그 모든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야 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이다. 이번 세월호의 침몰과 온 국민이 퍼붓는 저주스런 질타를 보고 들으면서 저에게 제일 먼저 두려움으로 밀려온 것이 하나 있다. 바

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배를 맡은 목사인데 제가 사명감에 투철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깨어있지 못하거나 천하보다 귀한 성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한 순간에 교회에 함께 승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못될 수 있을 것이고 세월호 선장처럼 목사도 그 무서운 질타와 심판을 당한다는 두려움과 목사로써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뜨겁게 느꼈다. 그런데 교구장들과 권사구역장, 각 선교회의 회장도 그리고 각 부서부장도 마찬가지이다. 내게 맡겨진 성도들을 생각하며 항상 깨어있어야 하고 그 사명감에 투철해야 한다. 자기 사명은 망각하고 세월호의 선장을 비판하고 신랄하게 지탄해선 안 된다. 나도 비판을 넘어 심판을 면치 못하는 세월호의 선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푸/른/초/장

김병용 목사  
(성서장로교회/미주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장)



가정의 달 이라고 부르는 5월을 맞이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은 세월호라는 여객선 침몰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가정과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국민들이 많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생이 되었고 아버지는 지도자, 종교자, 좋은 친구가 되기도 했다...(중략) 그의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이글의 내용을 보면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는 어른 말을 지식의 문호로 삼는다고 했을

을 성수하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게 되고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뿐 아니라 생활의 모든 것을 자녀들은 보고 배우기 때문에 부모들이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주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잘되어지기 바라는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은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되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자녀들이 잘될까요? 모두가 원하는 바램일 것입니다. 그 비결을 성경에서 배워 잘 적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되고 가정이 축복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내 자녀가 잘되면 은근히 어깨에 힘이 가고 으쓱해집니다. 의사가

아주 어린 신생아, 품에 품고 있는 젖먹이 아이를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보면 예수님께 데려온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젖먹이 아이들로부터 아주 어린 순결한 아이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나라에 합당한 자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 말은 어린아이의 신체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이런 마음과 성품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더러움으로 물들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역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천국은 이런 자의 것 (마 19:13-15)

여러분, 하우스(House)와 홈(Home)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집과 가정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우스가 아무리 넓고 크고 호화롭다 해도 그런 집에서도 행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지하실이라도 냄새가 나고 누추한 곳, 한 방에 5-6명의 식구가 몸을 맞대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집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우스(house), 집보다 더 소중한 것이 홈(home),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비평보다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가정은 자녀들의 교육의 현장이고 부모들은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교사와 같습니다. 말과 습관, 이 모든 것들은 가정과 부모에게서 제일이 배웁니다. 부모가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말로 훈계하는 것은 설득력도 없거니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효도를 받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여주면 자녀는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고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생활도 자녀가 보고 배웁니다. 기도하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주일

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천국에 대한 교훈을 해 주신 말씀입니다. 13절 서두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아이들의 부모들을 말하며, '그때'는 13절 앞에 나오는 말씀으로 결혼과 가정에 대해 말씀을 하신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앞에는 결혼의 이야기고 뒤에는 결혼을 통해 얻은 아이들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는 교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생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다. 부모들은 그 열매인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기도 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명예로운 자리가 이르게 되면 만나서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축 늘어지고 입을 꼭 다물게 됩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고 두문불출하여 방콕하려 합니다.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모는 자녀들을 잘되게 하려고 공부도 많이 시키려 하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되게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나 다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본문을 보면 자녀가 잘되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라는 말씀이

자녀가 잘되는 비결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꾸짖고 책망을 하자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고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라고 하시며 아이들을 천국의 표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교훈하신 이 아이들을 따르는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7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누가복음 18:15에서 이 어린이들을 '브레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인가? 표상으로 삼은 어린아이처럼 마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 믿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대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녀를 잘되게 하는 비결과 하나님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비결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라고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 또한 어린이와 순수한 믿음과 성품으로 하나님나라에 합당한 자 되어 성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해지기 바랍니다.

## 하나님의 구원계획

신·구약과 예언서인 다니엘서, 계시록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 성경 세미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 ① ② 하나님의 구원계획 구약 편, 신약 편
- ③ 칠십이레
- ④ 지금 이 시대의 말씀
- ⑤ 하나님의 구원계획 도표
- ⑥ 다니엘
- ⑦ ⑧ 꼭 읽어야 할 말씀 요한계시록 상하



주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강사: 라홍재 목사      ○장소: 뉴욕 제자교회 교육관  
○일시: 매주 목요일 저녁 8:30      ○전화: 718-224-1993, 917-968-1024



라홍재 목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1962, 3-1968, 2)  
미국 '테네시' 석유회사에서 13년간 근무(1972, 5)  
미국 휴스턴 신학교(1966, 7)  
미국 배다니 신학교 석사과정 수료(1992, 6)  
미국 배다니 신학교 석사과정 수료(1993, 6)  
미국 배다니 신학교 신학박사(Ph.D)(1996, 6)  
뉴욕으로 이주, 뉴욕민간대학교 설립(1996, 9)  
뉴욕제자교회 담임목사(2014,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 세미나 인도하는 라홍재 목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 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성경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이 회개하며 올바른 진리에 눈과 귀를 열 때입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때가 곧 도둑같이 임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때가 매우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도서 시리즈와 세미나를 통하여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제자교회 주소: 39-50 Douglaston, Pkwy., Douglaston NY11363

구입처 뉴욕제자교회 또는 각 지역 서점



한국의 이단 구원과 유병연 일가의 부의 축적이 한국과 세계의 이슈로 떠올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유병연은 부정적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을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수퍼부자이다. 그럼에도 그는 책임을 회피하며 도망자가 되었다. 새로 국무총리 후보인 안대희 변호사도 짧은 기간에 받은 고액의 수수료 때문에 범죄자가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청문회까지 매우 시끄러울 것 같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돈 때문에 나라가, 교계가 무너지고 있다. 선거에 돈이 투입되어 뻔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선출되고, 입시에 돈이 개입되어 교육을 뒤엎는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재정의 투명성 때문에 교회들조차 흔들리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삼고 그 마력에 깊이 빠져 있다.

유병연이나 수억대의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만이 수퍼 부자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수퍼부자들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사회문제 중

국 부자는 2011년 14만2천명에서 2012년 16만3천명으로 14.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만8천명으로 전국 부자 수의 48%를 차지하고, 또 인구대비 부자 수 비율도 0.77%로 가장 높았다.

우리는 상대적 상실감 가운데 살고 있다. 나보다 더 잘사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 미국 Gallop Poll에서 누가 부자인지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들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일년에 3만2천불을 버는 사람들은 7만 4천불을 버는 사람들이 7만4천불을 버는 사람들은 일년에 15만불을 버는 사람들이 부자라고 말했다. 일년에 15만불을 버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부자가 아니라고, 일년에 30만불을 버는 사람들이 부자라고 말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얼마를 벌면 부자인가를 물어보았더니, 대부분의 미국사람들은 한

해를 경고하고 있다. 2012년 국가조찬기도회 때에 오바마 대통령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부자증세, 공정사회, 기득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했다.

수년전 한국교회도 깨끗한 부자, 깨끗한 가난에 대한 열띤 논의를 했다. 깨끗한 부자, 청부론의 주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부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깨끗한 부자가 아니라 깨끗한 가난, 영성적 가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부자라는 말 자체가 허구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부자되는 것이 힘들다. 또한 현실적으로 볼 때 소유하면 할수록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몰두하지 신앙적 나눔을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혹시 재물을 나눠주면 자기 것을 나눠주는 우월의식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교만에 빠지므로 영적으로 좋지 않다.

최근에 일어나는 또 다른 논쟁은 두 논리 중 어떤 논리가 더 신앙적이고 성경적 일까 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청부론이나 청빈론 둘 다 성경적이지 않다. 몇년전 한국기독교윤리학교와 한국복음주의 윤리학교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총신대 이상원 교수는 '청부론과 청빈

서 가치'가 있다.

예수님은 부자청년과의 대화(마 19:23-24)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을 보여주신다. 성경은 물질의 소유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물질에 대한 태도를 주목한다. 주님의 요구는 분명하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가? 어리석은 부자는 수퍼부자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 주님은 그를 미련하다 하셨다. 그리고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임을 보이신다.

가난한 사람이 돈돈돈 하거나, 부자이면서 돈돈돈 하는 사람도 모두 돈의 유무와 관련없이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심령이 부유한 부자이다. 하지만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나, 돈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따라서 성경은 돈이 많고 적은 여부의 부자와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함을 보이신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의 것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세계적인 비율이나 기준으로 볼 때 이미 수퍼 부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저는 내년에 신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장차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움직여 같이 주의 일을 함께 하도록 동력화 시킬 수 있는지요?

-개혁신학교 Lee

**A:** 목회자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십시오.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길은 모두 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리더는 어차피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기에 사람들을 잘 움직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 100명의 사람이 할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명의 사람을 움직여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더 귀하고 중요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것은 리더의 갖출 역량입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그의 책 인간관계론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합니다. 이것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비난, 비평, 불평을 하지 말라.
- 유명한 심리학자인 B.F.스키너는 실험을 통해 칭찬 받은 동물은 늘 꾸중이나 듣고 벌을 받은 동물보다 훨씬 빨리 배우고 훨씬 효과적으로 배운 것을 습득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리더로서의 역량을 알아보려면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 가를 보면 압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 비난 불평하지 말고 칭찬과 감사를 표하라

대해서도 비난이나 불평이나 원망, 불평을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리더라면 그는 탁월한 리더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남을 비난하기보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2. 칭찬과 감사를 표현하라.

미국 경제계에서 최초로 연봉 100만달러 이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찰스 슈와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38세에 강철왕 카네기에게 발탁돼 새로 설립된 US Steel의 부사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카네기 밑에는 슈와브보다 훨씬 강철제조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카네기는 슈와브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슈와브에게는 사람들로부터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를 최고의 가능성을 개발케 하는 방법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상사로부터 늘 꾸지람을 들으면 인간의 향상심은 떨어집니다. 슈와브는 결코 누구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니다. 사람들에게 늘 동기를 부여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슈와브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이 최초로 연봉 1백만 불이 되게 만들었는데 그 능력은 칭찬과 격려라는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했습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상하게 하는 비판이나 비난을 삼가십시오.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절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3.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어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라.

가령 담배를 피우는 자녀의 나쁜 행동을 끊게 만들려고 한다면 담배의 해독성이나 사회적인 시선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결코 끊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자녀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음을 이야기 해보십시오. 담장 담배를 끊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분명 자녀의 생각에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 단 한가지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열렬히 일어나도록 동기부여를 심어 주는 것입니다.

## 수퍼 부자들의 책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하나의 부의 심각한 편중현상이다. 미국의 부를 상징하는 뉴욕의 웰스트리트에서 부의 불평등에 대한 항의 데모는 상위권 1%가 소유한 엄청난 부의 불균형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이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David Baker는 영국의 부자들의 현실을 보도했다. Phillip Inman은 영국의 부자상위권 1%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55%의 부를 소유한다고 했다. 금년의 통계에 의하면 영국의 상위 10% 사람들이 44%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영국처럼 민주화가 된 사회에서의 통계가 이정도이니 제3세계나 다른 나라들에게는 부의 편재 비율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영국 뉴선데이타임스 리치 리스트에 의하면 영국의 부자 1천명의 부를 합산해보니 5조1천9백만 파운드가 되었다. 그것은 국가 총생산량의 1/3이 된다고 한다. 고액연봉의 영국의 아스널 축구팀의 와그너 감독의 연봉을 326년간 모은 돈이라고 한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KB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부자 현황 및 자산투자 행태, 소득 및 소비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보고했다. 부동산이나 기타 실물자산 이외에 금융자산만 10억원이 넘는 한

가족 당 12만 달러를 벌면 부자라고 말했다.

Global Rich List라고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나의 수입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일년에 미화 3만불을 벌면 그는 전 세계의 사람들 중 가장 돈을 많이 버는 1.23%에 속한다. 미화 7만불을 벌면 세계 상위 0.13%에 속한다. 미화 12만불을 벌면 세계 상위 0.07%에 해당된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미 세계적인 부자들이다. 우리는 우리가 세계적인 부자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년의 수입이나 부동산을 따질 필요 없이 미국이나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세계에서 적어도 상위 10% 안에 드는 부자들이라는 말이다. 아직도 세계의 인구의 1/4이상이 우리의 커피 한잔 값도 못되는 1.25불미만으로 하루를 산다.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지만 이들은 절대적 가난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

가난과 기근이 마지막 때의 징조이다. 이미 식량의 무기화, 곡물의 무기화는 이루어지고 있다. 부의 편중과 불균형은 더욱 더 가속될 것이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미 그 위

론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동호가 쓴 '깨끗한 부자', '깨끗한 크리스천'에 나타난 청부론의 논리와, 김영봉이 쓴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사명의 기도'에 나타난 청빈론의 논리, 모두 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성경의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반영이다. 이 교수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입장이라고 했다.

우리는 칼빈의 가르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칼빈은 가난한 자는 부자를 필요로 하며, 부자도 가난한 자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칼빈은 신명기 16:11을 해석하면서 가난한 자와 부자는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안에서 가난한 자는 받고, 부자는 나누어 줌으로써 부자는 함께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 안에서 가난한 자는 받고 부자는 나누어 줌으로써 부자는 가난한 자와 똑같이 되지 않으면서도 그들과 나눔을 가진다. 사회적 가난한 자와 부자가 공존함으로써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살아야 함을 인식하게 해준다. 이런 칼빈의 해석은 기독교사회사상의 터전에서 나온 건설한 사회해석으로

가난하다고 엄살을 부리며 더더더 하는 생활을 한다. 다른 사람을 보고 더 필요하다고 상대적 빈곤을 말하지만 사실은 수퍼 부자들이다. 성경에 기초한 행복한 부자학 강좌로 유명한 영남대 박정윤 교수는 질문한다. 그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은가? 빛 갖고 하나님 펀드에 투자하라고 했다. 예수님은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다.

말세의 고통하는 때를 사는 우리는 성경의 경고를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딤후 3:1-2)라고 하셨다. 돈을 사랑하기에 상대적 빈곤함을 불평하는 세대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세어보고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생활을 사는 것이다. 수퍼부자들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나누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이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 청교도복음연구회 제 4회 정기세미나

## 주제 : "청교도와 설교"

### 급변하는 21세기에도 청교도가 필요한가?

무엇이든 뜯어고치는 것이 갱신일까? 청교도는, 초대교회의 원리에 충실하였고 오직 성경을 근거로하는 종교개혁자들의 교훈을 토대로 개혁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실천적 삶을 실제로 살았던 무리이자 운동입니다.

17세기 청교도들, 오히려 혼탁한 오늘날에 더욱 필요한 신앙의 삶의 모범이었기에 그들의 삶과 신학과 신앙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일은 청교도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올해는 "청교도와 설교"라는 주제로 1685년에 세운 말코니식 풀밭이 있는 가까운 옛 화란교회(Dutch Reformed Church)도 보고 발표회를 갖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교회들이 성장을 외치느라 개교회주의로 흘러간혀있는 틈을 타서 WCC나 이단이 불건전한 연합을 크게 외치는 이때에 건전한 교회들의 연합이 오히려 절실합니다.

- 일시: 2014년 6월 14일(토) (10:00 AM-4:00 PM)
- 장소: (1) The Old Dutch Church of Sleepy Hollow ( in Territown) 430 North Broadway, Sleepy Hollow, NY 10591 (2) 은혜와 사랑의 교회 181 Harrison Ave., Harrison, NY 10528
- 대상: 목회자 및 전도사, 신학생
- 회비: \$20 (교재비) - 차비, 식비: 무료
- 일정: 10:00 AM 공영주차장(우리은행앞) - 11:00 AM - 예배 및 투어 점심, 이동 - 1:00 PM 은혜와 사랑교회에서 세미나 3:00 PM 뉴욕으로 출발 4:00 PM 도착

칼빈의 신학과 설교(예배 설교)	윤성태목사 (UTS 교수)
리처드 백스터의 목회적 설교	김필식목사 (영림교회담임, UTS학장)
조난단 에드워드 설교의 특성	최기성목사(은혜와 사랑 교회담임, UTS교수)
찰스 스펔전 설교의 특성	이창중 목사 (동서교회담임, UTS교수)
청교도 설교와 풀핏 인테리어	김경옥전도사(청교도가정사역원원장, 화가)

연락처: 청교도복음연구회 총무 이창중목사 (917) 399-6754, (718) 939-8278, (917) 251-3039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베트남의 낭(NHANG)



동남아시아의 동쪽 해안에 위치한 베트남에는 100여 개의 종족이 있으나 인구의 90%는 베트남 민족이다. 역사적인 대변동들로 주요 종족들은 다른 종족들과 혼합되고 분리되고, 결국은 뿔뿔히 흩어져 살게 됐다. 그들의 문화, 언어, 생활양식은 모두 서로 영향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특징

이 어느 정도는 "흐릿한(blurred)" 모습을 갖게 됐다. 낭족은 200년 전 중국으로부터 베트남의 북쪽지방으로 이주해왔다. 그들은 농족(Nung)과 다른 타이족(Tai) 집단들과 밀접한 문화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베트남은 빠른 인구성장으로 인해 사회적 서비스와 식량 공급에 부담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정부는 "가족계획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또한 정부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새 경제지역으로 이주시켰다. 1993년에 정부는 캄보디아로부터 도착하는 베트남 소수민족

산민들의 재정착에 대해 UN에 원조를 요청했다.

삶의 모습

낭족은 본래 농부와 가족을 사육을 하는 사람들로 대밭(stilts) 위에 지는 집(고상식 가옥: 역자주)에서 생활한다. 또 대부분 농장 개척지에 다른 집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노인들이 농작물, 가축, 가금들을 돌본다. 수공업은 대나무로 짠 물건들을 제외하고는 별로 발달되지 못했다.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무릎을 꿇고 치마를 입으며 공들여 옷을 입는다. 오늘날 자주 천가방을 들고 전형적인 베트남 스타일로 옷을 입는다. 머리모양은 머리 주위를 둘러 감아올리고 그 후에 분홍색 실로 묶는 것이며, 이 묶은 실은 일반적으로 등 뒤 아래로 매달리게 된다.

매해 낭족은 "롱 푸크"(roong pook)이라고 불리는 축제를 열고 다가올 수확을 기뻐한다. 모든 가족들은 쌀, 옥수수, 고구마, 카사바, 호리병박, 야채 등을 심을 땅을 소유하고 있다. 쟁기질에는 황소를, 짐을 나르는 데에는 말을, 고기와 제물 봉납에는 가금을 이용한다.

공동 혹은 분담소유의 땅은 낭족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각 마을은 "마 등 씨야"(sacred forest)라고 불리는 금제의 숲을 일부 가지고 있다. "숲의 우두머리"라고 불리는 가장 큰 나무에서 1년에 두 번 마을 영을 숭배하는 의식이 치러진다. 마을입구 대나무 구조물에는 돼지, 황소 귀, 닭다리와 같은 제물들이 놓여진다.

낭족 사회는 부계사회이며 가장 중심사회다. 가족은 작은 편. 낭족 전통에 따라 여자는 복종해야 할 세 사람이 있다: 결혼 전에는 아버

지, 남편,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 이전에는 소녀들이 결혼에 팔리기도 했으며, 관례가 복잡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결혼상대자를 자유롭게 선택한다.

신앙

베트남의 많은 다른 소수종족들과 마찬가지로 낭족도 민족전통 종교관습을 갖고 있다. 다수의 신을 숭배하며 이 많은 신들은 지구, 불, 유명한 조상들과 관련이 있다. 낭족은 또한 다양한 영들을 숭배한다. 대부분의 마을에 숭배하는 사원들이 있다. 민속음악과 민속예술 또한 종교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 중간 단계가 지상에서의 삶이다. 천국 단계는 훌륭하고 영광스런 단계이며 아래 단계는 힘들고 창피스러운 것으로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44년 넘게 치른 전쟁은 베트남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회복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의료시설이 부족한 상태다. 오늘날 베트남은 몇 안 남은 공산주의 국가 중 하나다. 낭족은 아직 그들의 언어로 성경, 영화 "예수", 기독교 방송매체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복음전도의 자료들, 기독교 일꾼들, 이 귀중한 사람들을 위해 그 갈라진 틈에 설 중보기도자들이 매우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중국, '동방의 예루살렘' 저장성 교회 탄압

중국 저장성의 교회 64곳이 울 들어 예배당 또는 십자가를 철거당하거나 철거 명령을 받았다고 영문 아시아뉴스사이드 '아시아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동방의 예루살렘' 원저우가 있는 저장성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집중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중국 최대 기독교 도시 원저우는 주민 303만여명 중 15%가 기독교인이다.



코하람'에 납치된 소녀들의 위치를 파악했다고 26일 밝혔다. 알렉스 바드 나이지리아 국방장관은 이날 수도 아부자의 국방부 건물 쪽으로 수천명의 시위대가 행진해 오자 나이지리아군이 피랍 소녀들을 구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시위대에 이같이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하지만 그는 "구출하겠다는 명목으로 지금 들어가서 소녀들을 죽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녀들을 어디서 발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영국의 BBC 뉴스는 나이지리아 정부와 보코하람 간의 일부 소녀 석방 협상이 상당히 진전됐으나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보코하람이 소녀 50명을 풀어주는 대신 정부는 보코하람 조직원 100명을 석방하기로 거의 합의했거나 틀어졌다는 것이다. 국력 조너선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영국 정부 관계자에게 포로 교환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BBC는 전했다.

앞서 나이지리아 동북부 보르노주 치복시에서는 지난 4월 중순 무장한 보코하람 조직원들이 치복공립여자중등학교에 난입해 300명 이상의 여학생을 납치했다. 탈출에 성공한 53명을 제외하고 276명은 여전히 붙잡혀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사건으로 나이지리아 정부와 군은 무능하다는 비판에 직면했으며 조너선 대통령은 이달 들어서야 국제적인 지원을 받기로 수락했다. 하지만 보코하람으로 추정되는 무장세력의 납치-공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6일 아다마와주 와가 마을에 보코하람으로 추정되는 무장 세력이 들이닥쳐 20명의 주민이 숨지고 가옥 여러 채가 불탔다. 전날에도 보르노주의 한 마을에서 오토바이를 탄 무장괴한들이 시장에 있던 주민들에게 발포해 최소한 24명이 숨졌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서구식 교육은 죄악'이라는 뜻의 보코하람은 이슬람 율법에 따른 국가 건립을 목표로 하면서 나이지리아 북동부를 중심으로 2009년 이후 세력을 넓히고 있다.

수단, 기독교 개종 입산부에 '태형 100대'

임신한 수단 여성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태형 100대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태형 100대는 사실상 사형 선고와 같아서, 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커지고 있다. 미국 남침례회 윤리와종교위원회 러셀 무어(Russell Moore) 위원장은 존 케리(John Kerry) 국무장관에게 "정부가 외교적인 수단을 통한 리더십을 발휘해 이 여성의 형 집행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무어 학장은 "개인적으로 마리아 이브라힘에게 내린 형벌이 너무나 끔찍하고 비인간적임을 알리고, 그녀를 석방하라고 요구하기를 바란다. 또한 미국 정부의 외교적인 영향력을 이용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수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로 28살인 마리아 야흐야(Mariam Yahyah)란 이름의 수단 여성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각) 수단 법원에서 태형 100대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녀가 기독교인 남성과 결혼한 것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임신 중인 그녀는, 다만 형이 집행되기 전 출산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이브라힘의 남편인 다니엘 와니(Daniel Wani)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최근 그녀와 함께 감옥에 갇힌 20개월 된 아들 역시 미국인이다. 판사는 그녀의 믿음을 돌리기 위해 3일간의 시간을 주었으나, 그녀는 "난 한번도 무슬림이 아니었다. 난 처음부터 기독교인으로 자랐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브라힘의 아버지는 무슬림이었지만, 그녀가 6살이 되던 해 가정을 떠났다. 기독교인이던, 이브라힘의 어머니가 그녀를 길렀다.

무어 학장은 "오늘날에도 수단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비극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단의 정부는 지속적인 인권 침해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되고 있다. 비영리단체는 소수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박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 대한 이러한 판결은, 특별히 신성모독법의 야만적인 결과와 종교적 자유의 침해를 드러내고 있다. 인권은 인권선언문의 18조 조항에 의해 확정된다"고 밝혔다.

무어 학장은 "우리의 남침례교 선조들도 종교에 관한 당국의 권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행정 당국의 핍박을 받았다. 우리는 이브라힘 여사의 이름으로, '신앙

은 감압되거나 법률로 제재될 수 없으며, 어떤 사람도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투옥되거나 처형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단언한다"고 주장했다.

수단은 오픈도어선교회가 매년 발표하는 박해국가 순위에서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법과정의센터는 21일 오후 이브라힘 석방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실시했으며, 149,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다.

교황 예루살렘 성지 방문 직후 인근 성당에 방화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루살렘의 한 성지를 방문한 직후 바로 근처의 가톨릭 성당에 한 남성이 침입, 불을 질렀다고 26일 이스라엘 경찰과 수도원 관계자가 밝혔다. 경찰은 예루살렘의 도미티온 수도원 성당에서 명백히 방화로 보이는 공격으로 순례자용 기도책 등이 불에 탔다고 밝혔다.



경찰 대변인은 한 남성이 성당 안으로 들어가 촛불을 켜 뒤 도망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전했다. 방화범의 신원이나 동기, 신병정보 여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도미티온 수도원의 공보 담당자인 니코데무스 슈나벨 수사도 "누군가가 성당에 침입해 순례자들이 쓰는 책과 나무 십자가를 불태웠다"고 말했다.

슈나벨 수사원은 교황이 이 성당 바로 옆에 있는 '최후의 만찬' 기념 성소 '시나클'(Cenacle)에서 미사를 집전한 직후 방화사건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그는 방화로 기도책과 나무 의자, 십자가 등이 불에 탔으나 피해는 경미했다고 덧붙였다.

'다락방'(Upper Room)이라는 의미의 시나클은 예수가 로마군에 체포되기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한 장소이자 고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 다윗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여겨져 가톨릭과 유대교 등 여러 종교에서 성지로 간주하고 있다.

교황이 이곳을 방문하기 전날인 25일에는 일부 유대교 극단주의자들이 교황의 방문과 미사 집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4일부터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으로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방문한 후 26일 로마로 돌아갔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본교 소개 및 특전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2014년 5월 본교 강의안내

May 12-16(5월 12 -16일)

DI 8020 Cultural Anthropology(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om Stallter

May 19-23(5월 19-23일)

DI 8280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PM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과목과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졸업식 안내

일시: 2014년 5월 10일(토) 오전 9시
장소: 본교 Manahan Orthopaedic Capital Center

졸업식 리허설(Graduation Rehearsal)

○ 일시: 2014년 5월 9일(금) 오전 8시 30분
○ 장소: 졸업식 장소
(졸업예정자는 전원 참석해야 하며 정장차림을 해야 함)

총장주관 졸업만찬(President's Luncheon)

○ 일시: 2014년 5월 9일(금) 12:00-1:30pm
○ 장소: 웨스트민스터 홀(Westminster Hall)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33)



정성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 기독교 정치가 카이퍼의 평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우기 위한 삶의 전 영역에 불꽃처럼 타오르며 일한 위대한 칼빈주의자였고 굳센 성경중심의 복음주의자였고 칼빈주의적 정치가였다.

것은 무엇이며 그의 영향은 어떠한가, 과연 21세기에 왜 또다시 카이퍼를 말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카이퍼는 천재적인

독교 정치가요 실천적 정치가로 평가한다. 카이퍼는 천재적인 학자요 설교가요 연설가로서 대중을 움직이는 탁월한 카리스마와 배박

람 중에도 카이퍼의 정치를 낙관주의니 또는 낭만주의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어찌됐던 지난 1세기 동안 화란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등지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카이퍼는 기독교 정치가였다. 그는 기독교 정치의 이론과 실재를 몸으로 채득했다. 그리고 그는 열매를 맺었다. 국가를 안정시키고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나라의 주권을 세웠다. 카이퍼는 옛날 칼빈의 신학과 신앙에 기초하면서도 그는 항상 미래지향적이며, 적극적이며, 창조적이었다. 카이퍼의 정치적 영성(Political Spirituality)은 하나님의 말씀

치, 경제, 과학, 예술 분야에까지 크게 발전해 나갔다. 그러나 18세기와 19세기로 들어오면서 계몽주의 합리주의 사상이 불란서와 독일 등지에서 밀려오면서 서서히 빛이 바래기 시작했다. 그러한 환경에서 빌더다익(W. Bilderdijk)과 다코스타(Issac da Costa)같은 이들이 칼빈주의 사상의 회복을 생각했고, 그것이 흐른 반 프린스터(Groen Van Prinsterer)를 통해서 아브라함 카이퍼에게 접목된다. 카이퍼는 잠자는 교회와 민중을 깨우고 교회와 국가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여기에 바로 카이퍼의 공로가 있다. 그는 칼빈주의적 국가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명사상을 정복해나가는 것이었다. 카이퍼는 혁명 대신에 복음, 사랑을 섬기는 것, 휴머니즘의 신조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의 신조를 두었다. 이는 그 옛날 칼빈이 행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한을 활용하고 모든 행정관의 정의와 의무에 기초를 두었다. 이러한 말씀의 기초 위에 모든 자유의 원인과 안전을 인정했다. 카이퍼는 진실한 믿음이 중요함으로, 무력으로 국민을 강요하는 파워의 행정관을 신임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삶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출발점이었다. 이는 국가발전에 아니라 가족, 산업, 학교 그리고 과학과 예술에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지난 1세기 동안 화란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등지에 큰 영향 끼쳐 교회와 사회, 국가에서 하나님 말씀 통해 불신풍조와 혁명사상 정복

1988년 10월 17-28일에 한국 칼빈주의연구원이 주최해서 세계 최초로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 자료 전시회'를 한국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7년 10월31일에 종교개혁 480주년을 맞이해서 화란 암스테르담 뿌리아대학교 정치학사교수인 안 더 브라인(J. De Bruijn) 박사를 초청하여 "기독교와 정치개혁-A. Kuyper의 칼빈주의적 정치 모델을 중심으로"라는 특별 강연을 가졌다. 이런 일련의 이벤트들이 기독교 정치 또는 카이퍼의 칼빈주의와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데 일조를 했다.

카이퍼는 1세기 전에 활동하던 화란의 신학자이자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기독교 정치가였다. 그의 사상과 삶 그리고 정치적 활동을 앞에서 언급했거니와 그가 남긴

학자요 열개의 머리와 백개의 손을 가졌다다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유능한 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일종독자라고 할 만큼 일생동안의 목적으로 남치는 에너지로 일했던 일꾼이었다. 우리 모두가 그의 흉내를 낼 수는 없을지라도 그가 일구어 놓은 칼빈주의적 정치유산을 취사선택해서 활용한다면 한국 교회와 사회 그리고 나라의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카이퍼의 기독교 정치의 서로 다른 평가가 있다. 한편으로는 요한 칼빈 이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삶의 전 영역에 접목시킨 기

한 신학적 성경적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대중들을 사로잡았다. 또 그의 저널리스트로서의 삶이 상상작업을 해서 기독교 정치의 승리적 모델을 보였다고 했다. 그 당시 인본주의, 계몽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국가 권력 지상주의로 인권이 실종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 카이퍼는 헤쳐처럼 나타나 하나님중심의 세계관으로 정치와 세상을 보게 하는 눈을 뜨게 했다. 그러나 카이퍼의 정치에 대해서 좌파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은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다. 또 카이퍼의 정치노선을 지지하는 사

과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主)되신 왕권과, 하나님이 만유와 만사의 창조주와 구속주와 심판주가 되신다는 확고한 터 위에 서 있었다.

카이퍼가 이와 같이 기독교적 정치에 소명을 가지고 사활을 걸고 의정당에서 활동하고 개혁명당의 당수로서 수상으로 활약한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었다. 과거를 뒤돌아보면 화란은 처음부터 칼빈주의의 신학과 신앙을 가진 나라였다. 16세기와 17세기 동안 화란의 칼빈주의적 사상은 정

부여했을 뿐 아니라, 이원론자들이 포기 했던 정치와 사회 전반이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카이퍼는 칼빈과 라스코(John a Lasco) 그리고 후기 종교개혁자 부티우스(Voetius)와 기타 종교 개혁자들에게 심취했을 뿐 아니라, 잃어버렸던 개혁신앙의 전통을 복원하고 그것을 독자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삶의 목표가 교회와 사회뿐 아니라 국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신 풍조와 혁

카이퍼의 정치적 삶을 평가한다면, 그는 칼빈주의적 실천적 정치가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정치가로서의 카이퍼는 자유의 대변자였다. 카이퍼에게 있어서 자유란 각 시민, 가정의 모든 가정 연구회와 공장의 책임자, 과학적 노력에 관해서는 행정관의 명령에 따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씀과 신앙고백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부도 교회도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카이퍼는 과학적 연구와 대학의 현장교육 분야에서 자유를 옹호했다. 국가가 독점적으로 학문의 자유를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카이퍼는 또한 노동과 산업분야에서 자유의 대변자였다.

(9면으로 계속)

## 칼럼 음악목회 (28)

### 지휘자의 조건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원소장



지휘자는 누구보다 더 좋은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음악적인 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귀가 좋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표현을 만들어가는 데도 음악 전체를 잘 듣고 구성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찬양의 주제가 되는 가사전달에도 뛰어난 해석력과 그 가사에 따른 음악적인 표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불어 피아노만이 아니라 오르간과 더 나아가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을 모두 아우르는 오케스트라까지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균형과 어울림은 기본적으로 갖

추어져야 하겠지만 오케스트라를 사용함으로 인해 더 어수선하고 음악적으로 정리가 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차라리 무반주 음악이 더 효율적인 찬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휘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은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얼마나 음악을 많이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 주려고 대단한 앞에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거나 음악에 대한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지휘자는 음악 그 자체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

저 선곡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찬양대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곡을 선택해야 함은 물론 그 곡을 충분히 잘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책임은 지휘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쉬운 곡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도전할 수 있는 곡을 선정하고 단계별로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휘자 자신이 부르지도 못하면서 지휘가 까다로운 곡을 선택하여 피아노에 하나에 의해 각 파트를 연습시키고 합치면 파트별로 음정을 정확하게 내지 못하게 되는데 지휘자가 듣고 고쳐주지도 않고 그저 부르게만 한다면 대원들의 불만

은 물론 듣는 성도들도 별로 감동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까 한 번쯤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파트별로 어려운 부분만 계속 연습을 시키다가 연습 시간을 다 보내고 불완전한 상태로 예배에 투입된다면 그와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실까?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 대원들은 어떻게 할까?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는 뛰어난 연습 테크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찬양대원들은 음악전문가가 아닙니다. 지휘자가 곡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하지 말고 찬양대원들이 충분히 소화하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찬양대원 스스로 먼저 은혜 받고 성도들도 은혜로 화답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휘자는 춤을 추지 말고 지휘를 해야 합니다. 언젠가 한 국드라마 중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연속극이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극중에 주연을 맡은 배우의 지

휘하는 모습이 자주 소개되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배우로서 연기는 아주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분들이 그 주연 배우의 지휘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가 어떻게 그렇게 지휘를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감탄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우는 지휘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발레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휘와 발레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먼저 발레를 설명하겠습니다. 발레는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의 리듬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입니다. 즉 음악의 변화에 맞추어 그에 맞는 동작으로 몸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음악을 이해하고 그 음악의 변화를 알아 몸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치 발레를 하는 무용수가 음악에 맞추어 작품을 만들어 표현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휘는 발레와 아주 다릅니다. 발레는 음악을 듣고 그 음악에 몸 동작을 맞추어 춤을 추지만 지휘는 음악보다 한 박자 앞에서 몸동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대부분의 한국인 지휘자들은 지휘를 하지 않고 발레를 합니다. 대체로 연습과정에서 이미 약속된 음악적인 표현들을 실제 연주에서 지휘자 없이 그대로 연주하는 상태에서 그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중이 눈을 감고 들으나 눈을 뜨고 들으나 지휘자를 반드시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휘의 예술은 청중이 100명이면 500명인 1000명이면 5000명인 모든 청중을 음악적인 감각으로 끌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휘자의 지휘에 의해 표현되는 음악적인 변화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고 모든 청중을 하나로 규합할 수 있습니다. 지휘자들에게 제발 다시 한 번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지휘를 하려거든 한 박자 전을 지휘하십시오."

▲ 차세대연구원: (714)699-0210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p><b>뉴욕갯세마네교회</b></p> <p>담임목사: 이지용</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p> <p>Tel. (718)358-8225, Fax. (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p>	<p><b>뉴욕옥양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송병기</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p> <p>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p>	<p><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혜천</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아)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212)886-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b>뉴욕새벽별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정기태</p> <p>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아)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p> <p>Tel. (917)733-7387, Fax. (516)883-1961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ae@yaho.com</p>	<p><b>뉴욕새사람교회</b></p> <p>담임목사: 이종원</p> <p>주일예배: 오전 10:30 영아예배: 오전 10:45 수요기도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플러스), (917)373-3411 46-04 162 St. Westbury, NY 11558</p>		
<p><b>뉴욕새생명장로교회</b></p> <p>담임목사: 허윤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45-50 162 St. #2F1, Flushing, NY 11358</p>	<p><b>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b></p> <p>담임목사: 이만호</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p>	<p><b>뉴욕중부교회</b></p> <p>담임목사: 김재열</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p> <p>Website: nyjbc.org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252-00 Horac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p>	<p><b>뉴욕초대교회</b></p> <p>담임목사: 김승희</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10:00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p> <p>Tel. (718)639-3021, Fax. (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p>	<p><b>뉴저지성도교회</b></p> <p>담임목사: 허상희</p> <p>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학교: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금요기도회: 오전 8:00 (매주1주, 3주)</p> <p>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p>	<p><b>리빙스톤교회</b></p> <p>담임목사: 유상열</p> <p>주일예배: 오전 10:50 영아예배: 오전 10:5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p>	<p><b>롱이일랜드성결교회</b></p> <p>담임목사: 김석형</p> <p>주일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516)333-1571, 목회실: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50</p>
<p><b>에벤에셀선교교회</b></p> <p>담임목사: 최창섭</p> <p>주일1부예배: 오전 10:45 주일찬양예배: 오전 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j.us/</p>	<p><b>에사라교회</b></p> <p>담임목사: 손한권</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p>	<p><b>주비전교회</b></p> <p>담임목사: 이규본</p> <p>주일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회: 오후 5:00 영아예배: 오후 1:00</p> <p>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p>	<p><b>중부뉴저지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이원호</p> <p>주일예배: 오후 1:00 영아예배: 오후 2:00 목요찬양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p> <p>Tel. (732)310-0022(교회), Fax. (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p>	<p><b>퀸즈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성국</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qpc.org</p>	<p><b>퀸즈한인교회</b></p> <p>담임목사: 이규섭</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8:30</p> <p>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cny.org</p>	<p><b>한마음침례교회</b></p> <p>담임목사: 박마이크</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516)277-1103, Cell. (917)8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km@gmail.com</p>
<p><b>하와이 행락교회</b></p> <p>담임목사: 이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b>하와이행락교회</b></p> <p>담임목사: 조일규</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아)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p>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189. 창조론의 기초(39) 창조 속에 보이는 디자인

진화론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시대에 사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창조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다. 또 창조를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와 다를 경우가 많다. 성경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확신도 없으면서 그저 덮어놓고 창조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창조의 증거를 잘 모르기 때문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히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롬1:20). 창조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성품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지도 말고 알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실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창조를 모르고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했

창세기 1장의 넷째 날에 시간의 디자인을 볼 수 있고 지금도 그 디자인은 확인되고 있다. 지구뿐인 우주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셔서 날(day) - 달(month) - 계절(season) - 해(year)의 천체 시간 체계가 이루어지게 하셨다(창 1:14). 이 각각 혹은 이 전체 시스템의 정확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예를 들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리는 약 9억4천만 km인데 매 초 약 30km의 속도(총알속도는 초당 1km 이하임)로 돌아 1년 뒤에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나타난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창조 당시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둬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창8:22).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추위와 더위가 더해지기는 했지만, 창조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말씀은 지금도 확인하고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바다.

뛰어 오르려고 웅크리고 있는 쥐와 개구리를 보라. 두 동물들 모두 비슷한 네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발에는 5개의 발가락이 있다. 창조자를 부인하는 진화론자들은 이런 모습이 진화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전 국민은 과학 교과서를 통해 이 내용을 ‘상동기관’이라고 배우고 대학 입학시험

발가락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유전 정보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른 출발에서 그런 유사성이 생겨난 것에는 그런 구조를 갖도록 디자인 하신 창조자의 지혜와 능력이 있을 뿐이다.

창조물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이 사람이고 사람 몸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뇌와 손이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람의 손은 거의 자유자재로 움직여 뇌가 생각한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손가락뼈는 피보나치의 순열(다음 칼럼에서 자세하게 소개함)로 되어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들은 손에 있지 않고 팔에 있어 민첩함과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손가락들 중에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들과 힘있게 마주할 수 있어 섬세한 일과 힘이 필요한 작업을 각자 혹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무슨 일을 잘 했을 때 엄지를 치켜세우는 것은 그냥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임을 확인하며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

시금치같은 사과 한 입은 깨물 때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먹는 것이다. 우리 몸은 태양 에너지를 직접 사용할 수 없지만, 식물은 그 에너지를 사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결합시켜 포도당을 만들고 그것으로 생명체들이 필요한 다른

# 영성칼럼



이희영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 물질만능의 이상보다 하나님

라반은 리브가의 오페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귀중한 물품, 보석 등등을 많이 싣고 와서 동생 리브가가 혹여 부장 짐머느리로 당장 따라나선 것을 보았습니다. 거친 땅 중동에서 양치는 이들의 삶이 고달프고 물질에 몹시 목이 마릅니다. 부의 축적을 위해선 무슨 일이라도 합니다. 멀리 시집간 여동생의 아들 야곱이 집에 와 양치기를 도우면서부터 물질이 붙어오는 축복이 오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 나와 함께 살라고 종용합니다(창30:27).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함께함을 믿는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하여 축복의 빌미가 되는 야곱을 붙들어 놓기 위해 거짓말을 밥먹듯 합니다. 두 딸들도 이요합니다. 삼촌 라반을 떠나 야곱일행이 3일길을 갔을 때 자기 집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얹어진 것을 알고 사색이 되어 뒤를 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꿈에 현몽하여 저들을 아무 말 말고 보내주라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남편이 앞서 남편 고향으로 따라 나서지만 앞날이 두려운 라헬이 경수가 나서 못 일어나다며 아버지가 생명 걸고 찾으러 온 아버지 집안의 신상 드라빔을 훔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앞날에 대한 불안이 모두에게 심각한 것인지? 드라빔에게 경제적 축복이 나오는 이상승배에 집착하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이단을 떠나는 라헬의 모습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목숨 걸고 집착할 만큼 녹록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이기에 더욱 더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여 물질을 얻고 그 얻은 물질을 내 주머니에 잘 챙겨두려는 집착으로 인해 하나님주신 인간됨을 온갖 모습으로 상실하는 현실 세상의 적나라한 실상입니다. 참으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근원을 삼킵니다. 물질은 이 세상을 살기 위해 절대로 필요한 방편임은 사실입니다. 하여 주기도문에서 물질관리 기본원칙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틀이 거룩하여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욕심이 잉태하여 자기 배만 위해 집착하던 라반이었지만 거기까지 라고 하나님이 금을 그실 때 멈추고 축복할 줄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주 작은 신앙 양심을 순복했습니다. 물질만능의 이상승배는 자기 배만 위하기에 중국에는 파벌입니다. 물질에 집착한다 해서 물질이 쉽게 손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물질은 가까이하면 달아나는 무지개입니다. 악하게 취한 물질은 반드시 내게 악하게 해를 가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물질로 인해 허다한 인간관계가 엉망진창으로 깨어지는 것은 모두가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여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면 모든 잘못된 관계가 건강함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 모두가 함께 더불어 어우러져 형님만저 아우만저 배려하며 사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라반과 야곱의 가족들을 보며 세상 요즘 물질 만능주의로 깨어진 요즘 세상을 보는 것 같아 아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에 족하며 혹여 나뉘어 필요할 이들이 보이면 아까워말고 서로 따뜻이 챙기며 사는 훈훈한 인정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염원해봅니다. 서로 화기에 보듬고 사는 모습을 보면 자신들이 우선 행복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내 조국 한국, 내가 사는 나라 미국, 나아가 온 세상에 하나님나라가 임하길 꿈꿔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최상의 행복입니다.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 우주는 지구를 위해 존재하고 지구는 사람을 위해 존재 동일 시공간 속 각 생물의 동일구조는 창조가 더 논리적

에 증거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있는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 절망적인 믿음이고, 맹목적인 믿음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처럼 후대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고 믿게 될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이지 증거들을 보지 않고 믿으라는 말씀은 아니었다(요20:29).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고 말한다.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 뿐이다. 모든 세계(만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3절)는 창세기 1장의 내용과 그 창조자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6절)는 내용이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 내용을 알아도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정말로 찾아보기가 어렵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한다. “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디자인**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와 그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던 것과 비슷한 것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도록 친히 가르쳐주신 내용마저 거부해버리면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 즉 우주의 창조자시다(창1:1).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고 어려운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이다. 앞서 소개한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이 창조자 하나님은 창조물들의 디자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간의 디자인, 공간의 디자인, 물질의 디자인 등을 보자.

에서 진화의 증거라고 동그라미를 쳐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진화의 증거인가?

사람의 손가락, 박쥐의 날개 뼈, 쥐와 개구리의 손가락의 구조가 비슷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왜 이들이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한 분의 창조자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공학자들은 좋은 디자인은 다른 곳에서도 계속 적용하여 사용한다. 동일한 시공간 속에서 각 생물들이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는 것은 진화론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 모델이 더욱 논리적이고 실제적이다. 진화과정은 상상이지 그 변형과정을 실제로 관찰한 과학자는 없고 유전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개구리의 발가락과 쥐나 사람의 손 혹은

물질들이 만들어진다. 그 포도당은 사람의 몸에서 완전히 분해되어 다시 물과 이산화탄소로 되돌아간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태양에서 온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맛있는 고기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다. 식물에서 온 에너지를 동물들이 먹고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성장한 것이다. 이 얼마나 완벽하고 놀라운 디자인인가?

이 우주에 지구와 같은 특별한 행성은 없다. 성경은 이 우주자 지구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지구는 생명을 위한 것이고 생명들 중에 가장 특별하고 존귀한 생명체가 사람임은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다. 지구는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성경(사45:18)의 기록이 사실인 것이다. 창세기 1장의 모든 창조는 여호와(Lord)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살도록 디자인하신 것들을 알 수 있다. 이 창조자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주인이신, 여호와께 복종하기로 결정하고 고백한 사람이 참 크리스천 아닌가?

이메일: mailforwoischoi@gmail.com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선교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 조성근목사 부흥성회 일정

**2014 기도성회**

1월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12월 12일 ~ 15일 우리교회(김호경목사)
1월 17일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월 2일 평화의 동산 기도원(미중진목사)	19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10월 10일 ~ 12일 청파중앙교회(김형우목사)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13일 오산리 최자실기부 금식기도원	

**2013 기도성회**

1월 13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13일 포일남교회(김영주목사)
1월 17일 ~ 3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3월 3일 평화의 동산 기도원(미중진목사)	17일 ~ 2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4월 4일 ~ 5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6월 6일 ~ 8일 한양교회(차은일목사)	27일 ~ 30일 과천교회(주현진목사)
11월 11일 ~ 13일 청파중앙교회(김형우목사)	

**2**

3월 3일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10월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7일 ~ 19일 용인 신세계교회(문용구목사)	14일 성일교회(원용식목사)
20일 ~ 2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7일 ~ 19일 발안 사랑교회(서기영목사)
21일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교회(한재신목사)	23일 ~ 26일 동은교회(이동호목사)
23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30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3**

1월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0월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0월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성일교회(원용식목사)
17일 ~ 19일 발안 사랑교회(서기영목사)	23일 ~ 26일 동은교회(이동호목사)
23일 ~ 26일 동은교회(이동호목사)	30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5**

3월 3일 과천교회(주현진목사)	6월 6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6월 6일 ~ 9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광명순복음교회(하용달목사)
10월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일 ~ 1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6일 ~ 30일 하버비전교회(오영택목사)	

**6**

3월 3일 ~ 5일 예우교회(류병희목사)	10월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0월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일 ~ 22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일 ~ 26일 기아-간교회(김의철목사)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30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7**

1월 1일 ~ 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5월 5일 인천 대교교회(정영우목사)
5월 5일 ~ 18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8일 ~ 2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8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9일 ~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8**

1월 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월 2일 산곡기독교회(한기재목사)
4일 ~ 8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6월 6일 평화의 동산 기도원(미중진목사)
12월 12일 ~ 15일 GST 31th 신학생 여름훈련	22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

1월 1일 LA 미주 평화교회(김은목목사)	2월 2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8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9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30일 새원교회(이정수목사)

**10**

1월 1일 갈멜산대학교·대학원 재물	17일 ~ 2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월 1일 ~ 2일 새원교회(이정수목사)	20일 LA 미주 베이커스필드교회(지동근목사)
5월 5일 햇빛교회(임숙희목사)	7월 7일 ~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일 ~ 16일 남서중앙교회(여현근목사)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7일 ~ 29일 동양교회(김종열목사)

**11**

4월 4일 ~ 6일 일심교회(원성목사)	10월 10일 창대교회(최영목사)
11월 11일 ~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8일 ~ 20일 대전 성남교회(정민영목사)
24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5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2**

1월 1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23일 ~ 2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9일 신학생 철야 초년의 밤(GST)	30일 ~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5일 ~ 18일 신광교회(김성민목사)	22일 인천기아-간교회(정영석목사)

**미주 갈멜산기도원**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213) 382-1450

**갈멜산금식기도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17번길 32  
☎(031)472-7212 www.galmelsan.or.kr



목회서신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문병용 목사 (유니온교회 담임)

날 때부터 짙푸었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17세가 되기까지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창피해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자기 몸에

열등감을 갖고 있었는지 부모는 학교에 보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7세가 되던 해에 그 집을 찾아온 수녀님의 설득에 의해서 이 소녀가 태어난 지 17년 만에 기

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로 온 목사님은 그날 강의 중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나

가십시오. 이 기도원 마당이든지 산이든지 어디든지 나가서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들어오십시오.”

짙푸 소녀도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산자락 나무아래에 좋은 자리를 다 찾았습니다. 그러나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는 이 소녀는 자연히 사람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찾다가 한적한 곳에 앉게 되었습니다. 앉고 보니 쓰레기통 곁입니다. 아, 나는 어딜 가나 쓰레기구나. 소녀는 한숨을 쉰 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 한 소년아 오더니 쓰레기통을 손으로 뒤지면서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짙푸 소녀는 용기를 내서 난생 처음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 보았습니다.

“저어... 쓰레기통을 왜 뒤지는 거예요?” “캔이나 종이를 찾고 있어요.” “그걸 찾아서 뭐 하려고요?” “이걸 가지고 가면 돈이 되거든요. 팔아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편찮으신 데 약을 사 드리려고요.”

그 순간 짙푸 소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을 것 같은 저 쓰레기가 노인들의 약값이 될 수 있다면 쓰레기 같은 나도 병들어 누워 있는 사람을 위하여 약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순간 이 소녀는 마음으로 큰 결단을 내

린 뒤, 기독교에서 경영하는 양로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질망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것을 여러분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28차 총회 및 선교대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제 28차 총회 및 선교대회

총회장 임성진 목사, 부총회장 박형은 남종성 목사

세계복음선교연합회(World Evangelical Mission Alliance, 총회장 한도수 목사) 제 28차 총회 및 선교대회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

사)에서 '땅 끝까지 증인되는 교회'(행1:8)란 주제아래 개최됐다.

13일 오전 남종성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한승수 장로 기도와 한도수 목사 설교("가르쳐 지

키게 하라", 마28:18-20), 임동선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성찬예식을 가졌다.

이러 임원선거를 통해 △총회장 임성진 목사(미국 웨드미션대학교 부총장) △부총회장 박형은 목사(동양선교교회), 남종성 목사(LA디사이플교회) △장로 부총회장 한승수 장로, 김영광 장로 △총무 이흥주 목사(웨드미션대학교 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한편 이번 선교대회기간 중에는 이동휘 목사(전주안디옥교회)가 초청돼 매일 저녁집회를 인도했다.

세계복음선교연합회는 지역교회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선교에 공동 협력함을 목적으로 1987년 설립됐으며 국제선교협력기관으로서 LA 동양선교교회를 중심으로 북미주, 중남미, 남미, 유럽, 중동, 오세아니아,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적으로 교회와 선교사들이 소속돼 있다.

(이성자 기자)



총회를 마치고 총대들이 한자리에 기념 촬영

총회장 윤성원 목사, 부총회장 정완기 박창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정기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JJ호텔랜드호텔 2층 로얄룸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아:2:13)란 주제로 개최됐다.

정인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개회예배는 김영렬 목사 기도, 홍성표 목사 성경봉독, 목조 여성중창단의 찬양과 김영락 목사의 색서폰 연주에 이어 정진기 목사의 설교

가 있었다.

정 목사는 "예수님도 오실 때 미션을 가지고 오셨고 사명의식을 한 번도 잊으시지 않으셨다.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도 복음전파의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의 미션을 항상 재확인하자"고 당부하며 "미션있는 총회가 됩시다"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28-32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이시영 목사의 집례로 성찬예식 순서가 있었으며 3부 회무처리로 들어갔다. 이날 회무처리와 임원선거를 통해 △총회장 윤성원 목사, △부총회장 정완기, 박창식 목사, △총무 강유남 목사(뉴욕), 홍성표 목사(서부), 이성도 목사(한국) △서기 윤태근 목사 △서기 임균만 목사 △회록서기 남성우 목사 △부회록서기 김영렬 목사 △회계 정진구 목사 △부회계 이우민 목사를 선출했다.

(이성자 기자)



주예수교회가 주최한 다문화음악축제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 했다.

6개 교회성가대, 주민 400여명 초청

주예수교회 주최 다문화 음악축제

리치몬드 주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가 주최한 다문화 음악축제(Intercultural Music Festival)가 지난 18일 열렸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 음악축제에는 지역의 흑인교회, 백인교회, 히스패닉교회, 아시아교회의 6개 성가대 및 찬양팀과 지역주민 약 400여명의 참석자들이 각 인종 교유의 문화가 배어있는 찬양을 통해 하나가 되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을 보냈다.

배현찬 목사 환영사와 Caitlyn Deyerle 목사(사우스민터장로교회)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축제는 한인 박석민 장로(주예수교회)와 흑인 Alfreda Lewis 목사(Eastmin-

ster)가 함께 호흡을 맞추는 진행으로 축제의 흥을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메시아크리스천교회 찬양팀의 세련되고 영적인 CCM 찬양에 이어, 이스트민스터장로교회 성가대의 흑인 특유의 영감 있는 찬양, 사우스민스터장로교회 성가대의 격조 있고 절제의 미가 돋보인 아카펠라, 히스패닉 순복음교회(Living Water)의 남미특유의 열정적이면서 자유로운 찬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복을 곁에 차려입은 주예수교회 성가대의 한국적 신앙의 강한 힘이 느껴지는 은혜로운 찬양으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이었다.

(정리: 이성자 기자)

마지막 피날레는 각 교회 성가대와 찬양팀이 함께 무대에 서서 온회중과 한 목소리로 아리랑 곡조에 맞춰 찬양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Christ, You Are the Fullness)"를 불렀고 Shady Clark Jr. 목사의 축도와 평화의 나눔 시간을 통해 모든 참석자들이 인종과 교단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며 음악축제의 막을 내렸다.

1994년 Eastminster장로교회와 주예수교회의 친선예배로 시작돼 지난 20년 동안 발전해온 다문화 음악축제는 참여교회들의 다채로운 특별 공연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회째로 참여한 New Life Christian Ministries의 워싱턴스팀 The Anointed Ones 다섯명의 멤버들은 온 몸으로 찬양의 가사를 연출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날 행권이 어려운 학생들의 대학학비보조를 위한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으며 인종간 화합의 장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장학금 수여자는 다음과 같다. △Diana Del Cid(Living Water) △Isiah Lamont Stroble(Eastminster) △Michaela Ashley Williams(Southminster) △Shelby R. Spellman(First United).

8월 5-8일 콜롬비아 CDP센터 방문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5월 월례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박진하 목사)가 지난 22일 5월 월례회를 갖고 8월 콜롬비아 선교지 방문과 후원음악회에 대한 보고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진하 목사 인도로 기도 임병남 목사, 설교 유상열 목사, 축도 이종명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상열 목사는 에베소서 3장 1-8절을 본문으로 "교회의 비밀"에 대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계시로 깨달은 교회의 비밀은 당시 함께 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공동체로 하나된 것처럼 현대 교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5월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도 성도사이의 벽을 허물고 인간소유의 현대에서 유일한 소통의 공동체가 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밀이 된다"고 설명했다. 유 목사는 또 "우리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단순히 감사에 그치지 말고 최선의 정치기가 되어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한다"며 "믿는 자의 인생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맡겨진 일 즉, 복음전파를 하는 것이며, 기아대책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강조했다.

2부 회의는 박진하 목사의 사회로 △8월 5일(화)-8일(금) 콜롬비아 보고타 엘도라도 CDP센터 방문 신청자 10명 확정과 △6월 29일(주) 엘피스찬양단(단장 김경길 집사)의 후원음악회에 대해 보고 논의했다.

이어 선교지 방문에 대해 통성기도한 후 전희수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뉴욕을 중심으로 미동부 지역에서 한국기아대책과 연결해 아동후원을 주력하고 있는 단체로 현재 콜롬비아와 페루, 중국 등에 90여명의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917)620-8964(회장, 홈페이지 www.eafh.org를 참조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7면에서 계속)

노동을 단순히 상품으로 보는 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며, 노예제도보다 더 열등하고 진부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카이퍼의 정치적 핵심은 양심의 자유를 옹호했다. 카이퍼는 1898년 프린스턴의 스톤강의에서 칼빈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말하기를 "불란서 혁명에서, 소수의 크리스천들을 위한 시민의 자유는 그 자신의 죄의 자각과 그 자신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칼빈주의적 양심의 자유이다"라고 한 것과 일치한다.

카이퍼의 정치적 이상은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이었다. 이것은 카이퍼의 삶의 계획인데, 이 계획이 카이퍼로 하여금 지적(知的)으로 뛰어난 인격을 만들고 한평생 주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했다. 이런 카이퍼의 정치적 목표는 화란 뿐 아니고 미국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 원리는 이론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위에 있음을 인정한다. 미국은 '교회와 국가와의 분리'라는 기초적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장로교는 때때로 '정치와 종교의 혼합'을 반대해왔다. 또한 '교회가 정치에 손을 대는 것'을 반대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 원리가 미국 장로교회의 바른 선택으로 좋게 보이는 것이 사실 일지라도, 칼빈주의는 첫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삶의 모든 영역에 주권을 가진 분이라는 것과 인간이 최고 통치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칼빈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라 불렸고 그가 활동했던 스위스는 "민주주의의 요람"이라고 불리었다. 또 칼빈이 살았던 제네바는 동맹국가들의 중심부였고 세계 도처에서 민주주의로 대표되어 주목받기도 하였다. 물론 민주주의란 용어는 정치적인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형태보다 도덕적인 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삶의 유일한 신성한 통치자라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주권보다 앞설 때 참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이로 볼 때 민주주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은 칼빈주의자였다. 그래서 카이퍼의 기독교

정치의 원리 또는 반혁명당이 내세운 정당정책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귀감이 된다고 보았다.

카이퍼는 칼빈의 신학을 보다 구체적 삶의 현장으로 끌고 와서 대중화하고 실제화 함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다. 그래서 카이퍼는 기독교 정치의 실천가이자 이론적 체계를 세웠다. 그러므로 랑글레이(M.R.Langley)의 지적처럼 "카이퍼 자신의 정치적 성향은 모든 유형의 인본주의 즉 보수주의, 자유주의, 중도주의, 마르크스주의, 전체주의 사이에서 제 삼의 길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한 프로테스탄트적 기독교 민주주의자였다"고 한 말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이 장을 마치면서 확신하는 것은, 카이퍼는 일생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우기 위한 삶의 전 영역에 불꽃처럼 타오르며 일한 위대한 칼빈주의자였고 굳센 성경중심의 복음주의자였고 칼빈주의적 정치가였다.

(다음호에 계속)

재건남가주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재건남가주장로교회는 36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실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 재건교단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가능하신 분
- 본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로 목회 경력 5년 이상 이신 분
- 한국어, 영어 이중언어가 가능하신 분
- 3년 Term으로 사역 가능하신 분
- 합법적인 미국체류 신분을 가지신 분

제출서류

- 한글, 영문 이력서
-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첨부)
- 목회 비전 및 자신의 신앙고백서
- 최종학력 증명서와 목사안수 증명서
- 한국어 및 영어 설교 Tape or CD
- 추천서
- 제출기간 : 7월 20일 2014년

제출처

The Revived Presyterian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1732 S. Verne Ave. Hawaii Gardens, CA 90716 수신: 청빙위원장

- 기타사항
1.청빙에 관한 문의사항 email : brianle91@gmail.com
2.제출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3.전화문의로는 사절합니다.



# 동부교계 게시판



## 북미원주민선교회 단기선교 신청접수

북미원주민선교회(Native American Mission Association, 회장 김수태 목사)가 단기선교 신청을 받는다. 일시는 8월3일(주)부터 9일(토)까지이며 선교지역은 미네소타(5개 지역), 위스콘신(3개 지역), 미시건(2개 지역). 참가비는 첫 번째 자녀 450달러, 두 번째 자녀는 350달러. 6월 첫 주일부터 8주에 걸쳐 훈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장소는 뉴욕어린이양교회(담임 김수태 목사). 신청마감은 6월 22일까지.

▲문의: (646)763-4211(김기호 목사), (917)648-6659(샘 리 목사)

## 퀸즈장로교회 전교인 여름수련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전교인 여름수련회가 6월 30일(월)부터 7월 2일(수)까지 뉴저지 허드슨밸리 리조트에서 열린다. "성령님, 열매 맺고 싶어요!"라는 주제로 강사는 김성국 담임목사.

▲문의: (718)886-4040

## 패밀리터치 주최 "좋은 엄마들의 모임"

가정사역기관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한 "좋은 엄마들의 모임"이 지난 16일 뉴저지 본원에서 개최됐다. 우중에도 참석한 뉴욕 뉴저지 일원의 20여 어머니들은 이상적인 어머니상에 대해 배우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좋은 엄마들의 모임"은 좋은 엄마가 되기 원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모임이라고 주최측은 설명했다. 다음 모임은 6월 19일(목) 저녁 7시부터 9시30분까지 열린다. 자세한 문의는 (201)202-4422로 하면 된다.

## 뉴욕장로연합회 목요기도회

### 6월4일 장경동 목사초청 조찬기도회 준비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회장 정권식 장로)는 지난 22일 오전 8시 연합회 예배실에서 목요기도회를 가졌다. 기도회는 김영호 장로 사 회로 이종명 목사(범기독교 이단대책협의회 회장)가 설교했다. 이종명 목사는 "승리의 새벽"(막1:35-39)이라는 제목으로 새벽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대표기도는 배상규 장로, 특별기도에 김주열 장로, 정덕상 장로, 헌금특송에 우화선 장로, 헌금기도 이계훈 장로, 이종명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는 조찬을 함께 나누며 임원회의를 했다. 내용은 △6월 4일(



수) 오전 8시 장경동 목사 초청 조찬기도회를 금강산 연회장에서 개최함에 있어 뉴욕교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8월 24일(주) 오후 5시 후러싱제일교회(담임 장동일 목사)에서 개최하는 제2차 다민족선교대회를 위한 행사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의견을 나눴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뉴욕원로목사회 5월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 뉴욕교협체육대회 뉴욕에일장로교회 종합우승

## 족구/뉴욕성결교회, 축구/뉴욕초대교회 우승 등



뉴욕교협 체육대회에서 배구 경기를 펼치고 있다.



뉴욕목사회 주최 설교클리닉에서 서성국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 성경 근거 '주의 날' 강의

### 뉴욕목사회 설교클리닉세미나, 강사 서성국 목사

뉴욕목사회(회장 황동의 목사)가 주최하는 설교클리닉 세미나가 27일 뉴비전교회(담임 황동의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는 서성국 목사(예담교회 담임).

세미나는 이성현 목사(뉴욕행복한교회 담임) 사회로 시작됐으며 회장 황동의 목사는 "해마다 하는 행사지만 이번에는 뉴욕목사회가 주관으로 하게 됐다"며, "이번 강사는 이광복 목사님과 동역하는 서성국 목사님이 오셨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목회에 큰 도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29일까지 오전 오후로 계속되는 이번 강의는 "주의 날"과 "요한복음"에 대해 특별히 강의하게 된다.

첫날 서 목사는 "주의 날의 근거를 성경에서 배우라"며 "계1:10-16에 나오는 '주의 날'과 살전5:2, 살

후2:2, 벤후3:10 등의 성경을 참조하라"고 말했다. 또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를 설명하고 안식일은 구약에서 율법적인 개념으로 그림자이며 주일 예배는 신자의 몸이 제물된 것이며 예배당에 모여 제물인 몸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성국 목사는 "주의 날이란 안식 후 첫 날이라고도 한다. 주의 날에 예배 즉 제사를 집행할 수 있음은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제사장(롬15:16), 장로(벤후5:1-5), 감독(딤후3:1-7), 목사(엡4:11-13)로 부름 받은 이들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삼고 예배 즉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원정 기자)

## 뉴욕원로목사회 5월 초청예배

뉴욕원로목사회(회장 소의섭 목사) 5월 초청예배가 지난 22일 뉴욕주는교회(담임 김연수 목사)에서 열렸다.

홍상설 목사 사회로 이성철 목사의 찬양인도 후 기도 이문구 목사, 특별찬양 사모 일동, 설교 김연수 목사, 봉헌기도 이성철 목사, 축도 방지각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연수 목사는 "복받은 가정"(시112:1-3)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가정과 교회가 복 받으려면 첫째 하나님 경외해야하며 둘째, 말씀을 따라 살아야하며 셋째, 바른 신앙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며 "원로목사님들의 복된 가정을

후배목사들이 따라 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국을 위해 특별기도 시간을 가졌으며 치료중인 회원(회병우 목사 뇌수술 중태, 구은주 사모 임원, 김영숙 사모 무릎수술)과 여행 중인 회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임근하 목사(유가족 이희자 사모)의 소천소식을 알리고 오랜 만에 참석한 송인채 목사, 3주 임원후 퇴원한 김경순 사모에게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6월 월례예배는 뉴욕한인제일교회(담임 박효성 목사)가 초청한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이 주최한 제29회 교협체육대회가 예년과 같이 메모리얼데이인 5월 26일 플러싱 매도우 코로나 파크에서 열렸다. 화창한 날씨 가운데 12개 교회가 참가한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청소년 배구에서 우승한 뉴욕에일장로교회(담임 김준홍 목사)가 우승기를 받았다.

배구 25팀, 족구 6팀, 축구 3팀 등 3개 종목에 총 29팀이 참가한 이번 체육대회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구 △장년부: 뉴욕만나교회(우승), 뉴욕에일장로교회, 뉴욕주는교회 △청년부: 뉴욕주는교회(우승), 퀸즈중앙장로교회, 은혜교회 △

청소년부: 뉴욕에일장로교회 A(우승), 퀸즈중앙장로교회, 뉴욕에일장로교회 B △여자부: 뉴욕성결교회(우승), 뉴욕에일장로교회, 프라미스교회 △MVP 박인영(뉴욕주는교회)

▲족구: 뉴욕성결교회(우승), 퀸즈중앙장로교회, 뉴욕에일장로교회 △MVP 이주우 집사(뉴욕성결교회)

▲축구: 뉴욕초대교회(우승), 뉴욕메신저교회, 뉴욕성결교회 △MVP 장인혁(뉴욕초대교회)

△응원상: 뉴욕에일장로교회 △감투상: 퀸즈중앙장로교회.

대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장경혜 목사 사회로 기도 박영진 장로(이사장), 설교 김승희 목사, 감사패 증정 이주의 장로 이상호 안수집사, 광고 송일권 목사, 축도 한재홍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이창남 목사의 경기 운영지침 설명이 있는 후 선수 선서를 하고 김승희 회장의 배구시구 후 경기를 시작했다.

(유원정 기자)



할렐루야대회 2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지금은 기도할 때"

### 뉴욕교협 할렐루야복음화대회 2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이 주최하는 할렐루야복음화대회 2차 준비기도회가 지난 27일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임병남 목사 인도로 기도 김명옥 목사, 성경봉독 이수원 장로, 설교 김중덕 목사, 특별통성기도 이미선 목사(미국과 조국을 위해) 이철희 목사(뉴욕동포사회와 복음화와 교계를 위해) 김연규 목사(할렐루야 2014 대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해), 광고 송일권 목사, 축도 양승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중덕 목사는 "지금은 기도할 때"(창12:10-2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삼겹살은 끊지 못하는데 이번 3회 준비기도회를 통해 복음화대회가 잘 이뤄질 줄 믿는다"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의기소침해야 할 안전지역에서 목회하시는 고촌 목사님이 '담대하리'는 주제로 강사로 오신다. '주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기도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동생으로, 하갈을 아내로 삼는 일들을 행하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를 발하셨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세월호 사건이 줄줄이 일어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나 기도하면 평안해진다.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보다 이슬람교도보다 더 나아야한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기도 안하면 시험에 들게 된다. 복음화대회를 통해 뉴욕교회가 일치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예배후 준비위원장 이풍삼 목사는 진행사항을 설명하며 각 순서 맡은 분들의 협력과 후원금 등을 당부했다.

한편 뉴욕전도협의회(회장 허윤준 목사, 전도분과위원장)가 할렐루야복음화대회를 위해 특별전도를 한다고 밝혔다. 김영환 목사(증경회장)는 27일과 6월 12일(목)과 대회를 시작하는 13일(금) 오전 11시 공영주차장 앞과 한인마켓 앞에서 노방홍보를 한다고 밝혔다.

3차 마지막 기도회는 6월 2일(월) 오전 10시30분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또 뉴욕교협 3차 입실행위가 9일(월) 오전 10시30분 한인동산장로교회(담임 이풍삼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 신, 구약 예언서인 다니엘서 계시록을 한눈에 알 수 있는

### "하나님의 구원 계획"

# 다니엘과 모함메시록 성경 세미나

한국과 일본에서 4차례 이상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 라홍채 목사의 세미나는 교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류구원의 구원 역사를 재조명하여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평신도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재충전되는 귀한 영적인 세미나입니다.



<라홍채 목사의 저서들>

장소: 대한예수교 장로회 뉴욕제자들교회(매주 목요일 오후 8시 교육관)

- 주 소: 39-50 Douglaston Pkwy., Douglaston NY 11363

- 전 화: 917-968-1024/718-224-1993<서적구입 및 세미나문의>

- 이메일: andcny1@gmail.com/교회웹사이트: http://www.nyandc.org

### <2014년 5월중 세미나 일정안내>

일시: 2014년 5월30일(금)

장소: 뉴비전교회

- 주 최: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 후 원: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 2012-2014 세미나 현황

#### 미 동부지역 뉴욕/뉴저지 세미나 현황

- <2012년>  
뉴욕갯세마네교회/ 뉴비전교회  
뉴욕, 뉴저지 워싱턴신학교
- <2013년>  
뉴욕행복한교회/ 뉴욕어린이양교회/ 뉴저지 주예수사랑교회/  
선한목자교회/ 큐가튼성신교회/ 뉴욕즐거움교회/뉴저지 워싱턴신학교
- <2014년>  
뉴욕대한장로교회  
주최: 대뉴욕지구원로성직자회

#### 해외지역 한국/일본 세미나 현황

- <2012년 1차>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 <2012년 2차>  
서울 승복교회/ 은혜교회/ 광성교회/ 인천 온누리장로교회/  
<2013년 3차>  
동경 뱀골교회/ 전주완산교회/ 제주 이기풍기념관  
대전동안교회/ 진주교회
- <2014년 4차>  
동경 행복교회/ 광주 사랑의빛교회/ 경기 예담교회/  
진주전산교회/ 부산가나안교회/ 부산남산중앙교회



3인3색 찬양콘서트가 주님의영광교회 호프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 '사랑' '은혜' '열정' 주제 찬양콘서트

## 주님의영광교회, 지명현, 최윤영, 이천 3인3색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야베스 청년공동체는 3인3색 찬양콘서트를 25일 오후 3시30분에 개최했다. '사랑, 은혜, 열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콘서트는 찬양사역자인 소리엘 지명현 목사, 최윤영 자매, 그리고 이천 목사가 출연해 분교 호프센터에서 청년들과 어우러져 찬양의 열기를 가득 내뿜었다. 야베스 청년공동체 찬양팀의 오프닝 찬양으로 시작된 콘서트는 지명현 목사가 '사랑하는 자여, '낮은 자의 하나님', '주는 나의, '야곱의 축복'을 불렀으며, 최윤영 자매가 '영원한 생명의 주님', '주님은 산골에서, '다시 복음 앞에, '사랑이', 그리고 이천 목사가 '일어나라 주의 백성', '글로벌리서데이', '들으시는 하나님', '미라클블레스', '우리 주 하나님'을 불렀다.

최윤영 자매는 "1세대 찬양사역자들과 함께 집회하게 되서 감사하다. 3인3색 찬양집회에 은혜라는 주제를 맡았다. 찬양사역자로 활동하기까지의 과정들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은혜이다. 이 은혜를 오늘 모인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명현 목사는 "오랜만에 젊은이들과 함께 찬양하게 되어 기쁘다. 오늘 콘서트가 뜨겁게 찬양하며 귀한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천 목사는 "주님의영광교회에 1년반만에 와서 감회가 새롭다. 열정이라는 주제를 맡아서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 청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임직자들과 김재욱담임목사(우측 첫번째)가 기념촬영

# 어머니 교회...제2, 제3 교회 세운다

## 나성소망교회 설립7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나성소망교회(담임 김재욱 목사)는 설립 7주년을 맞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가졌다. 18일 오전 11시 감사예배에 이어 이형규, 오형택 명예장로, 이득상, 박재우 안수집사, 박갑남 권사의 임직식이 있었다. 김재욱 담임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식은 김영화 권사 기도 후 김재욱 목사가 "어머니 교회"란 제목으로 예배소서 4장 11-16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임직자들의 임직 서약과 교우들의 향한 교우서약을 거쳐 임직자들에게 안수하고 귀한 일꾼으로 세워졌음을 선포했다. 이날 축사는 이바울 목사가 전했으며 이형규 명예장로는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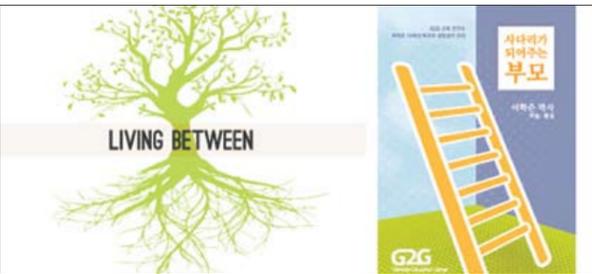
을 향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답례했다. 나성소망교회는 '제2사역! 건강한 중형교회! 행복한 가정'을 표어로 삼고 비전자를 전도하여 신자가 되게 하고(막16:15), 신자를 양육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며(마 28:19-20), 주님의 제자들이 은사대로 사역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으로(고전12:24-25),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해(고전4:20), "중형교회"를 이루고 어머니 교회로 제2, 제3의 중형교회를 태동케 해 지역교회의 모델이 되기를 소망하며 전진하고 있다. 교회는 4063 Ingraham St, 윌서팩 초등학교 내에 있다. (이성자 기자)

# 북미 한인청소년 위한 최초 영어교재 개발

## G2G교육연구소, 북미주KODIA 후원 하에

G2G교육연구소(소장: 이학준 박사, 풀러신학교 신학/윤리학 교수)가 캐나다의 북미주KODIA(대표: 노승환 목사) 후원하에 이민역사상 처음으로 2세 청소년(10학년)대상 32과 영어교재 "Living Between(사이에서 사는 삶)"(교사 및 학생용)과 학부모용 한글교재 "사다리가 되어주는 부모"를 출판했다. 본 연구소는 2007년 이학준, 케빈 박, 박길재 박사들을 중심으로 설립돼 2세 스태프들이 함께 일하는 초교과적 싱크탱크로, 2011년 2세 청소년을 위한 영어 정체성 교재, IDentity를 출판했으며, 북미주 여러 지역에서 수십 차례의 학부모, 교사, 목회자 강습회를 열어오고 있다. 본 연구소는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한인2세들이 겪는 문화적 혼란과 변두리화의 도전들에 대해 적합한 대안과 방향을 신학적-교육적으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12일 풀러신학교(Chang Commons Theme Room)에서 열린 영어권 행사와 22일 뉴저지 아글라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한국어 행사를 통해 교재출판을 축하하며, 이민사회에 교재의 내용과 방법을 알렸다. 특히 북미주 한인사회에 공존하는 두 언어와 문화를 반영하고자 영어권과 한국어에 알맞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제했다. 한편 오는 6월 2일(월) 파사데나 장로교회에서 한국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박희민 목사(새생명성교회 대표, 나성영락교회 은퇴목사), 이재근 목사(유니온교회 원로), 노승환 목사(KODIA 대표, 토론토모일교회 담임), 그리고 이학준 박사(G2G연구소장, 풀러신학교 교수)가 논찬자로 나서 발제하게 된다. (기사제공: G2G교육연구소)



북미주 한인 청소년을 위한 최초의 영어 교재

# 우울증세 2주 이상 지속되면 검진 필수

##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스트레스와 우울증 세미나

LA카운티 정신건강국이 개최하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관한 세미나가 22일 오전 10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오성진 목사)에서 열렸다. LA카운티 정신건강국은 수많은 이민자들이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감안, 그 스트레스를 잘못 관리, 방치하면 각종 정신문제 및 질환을 가져오며 뭉을 알리고 이를 위한 예방과 치료의 정보를 전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안정영 LA 정신건강서비스코디네이터의 환영인사가 있던 후 영상을 통해 실제적으로 우울증을 치료받은 사례를 관람했다. 이어 단에 오른 안 코디네이터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대해 "스트레스의 주요인은 외적요인과 내적요인이 있다. 내적요인으로는 비판적 생각, 부정적인 자신과의 대화, 낮은 자존감, 비현실적인 기대, 완벽주의의 일벌레,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격, 카페인, 불충분한 잠, 과도한 스케줄 등이 원인"이라고 말하며, "스트레스나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길은 건강한 생활습관과 운동, 가족 간의 대화, 스किन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각이 정지될 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에 자주 머물며 생각이 되새김질됨으로 우울증이 심해진다. 우울증세가 2주 이상 지속될 때는 반드시 의사를 만날 것"을 권하며 "우울증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인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와 리더들이 참석해 세미나 장을 가득 채웠으며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진지한 모습으로 경청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강의를 마친 후에는 토의와 질문의 시간을 갖고 의문점을 나누기도 했다. (이성자 기자)

# 서부교회 게시판

## 올림픽장로교회 이천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가 5월 18일 3119 W. 6th Los Angeles CA 90057로 교회를 이전하고 첫 예배를 드렸다. 한편 동 교회는 6월 14일(주) 오후 4시 설립 22주년 및 이전감사예배를 드린다. ▲문의:(213)387-1700

## 인랜드교회 장학생 모집

인랜드교회(담임 박신철 목사) 장학위원회는 2014년 장학생을 모집한다. 현재 남가주 거주자로 대학이나 대학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이 허가된 자로 세례 받은 기독교인에 한한다. 장학 종류로는 일반장학금, 신학생 장학금, 교역자 자녀, 장애우 장학금, 다민족 장학금 등 다양하게 장학금을 준비했다. 신청 마감일은 6월28일(토)까지이며 당일 우표 소인에 한한다. ▲문의: (909)-622-2324 / www.inlandchurch.org

# 박영창 목사 백수연 및 결혼75주년 행사

월광 박영창 목사의 백수연 연과 박정애 권사(95세)와의 결혼75주년 기념행사가 24일 오전 11시 호프센터 호텔 다이아스티움에서 열렸다.



박영창목사가 자신의 백수연에 참석한 이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이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박정애권사.

박영창 장로의 아들 박영남 목사(새소망장로교회 협동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박헌성 목사 기도, 송정명 목사 성경봉독, 정시우 목사 설교, 조전일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이어 2부 회고와 감사의 시간을 갖고 월광 1세기의 회고를 담은 영상을 감상하며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박영창목사의 일생을 돌아봤다.

이날 축사는 임동선목사, 박희민 목사, 김흥기박사, 정재훈박사가 각각 맡아 박영창목사의 백수연을 축하했으며 이민회이사장(미주동포 후원재단 명예)의 축하메시지를 이광길박사(풀러신학교대학원 한국학부 부원장)가 대독했다. 이어 4000시간을 사회를 위해 봉사한 노고를 치하한 오바마대통령 사회봉사상과 자유대학장기기 운동본부(회장 김봉건)가 준비한 일백세 축하 및 결혼 75주년 기념패를 최화랑 목사가 전달했다.

이어 박영창 목사는 마이크를 사양한 채 힘이 넘치는 육성으로 참석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아버지와 같이 육사하지 못하고 오래 살고

있어 죄책감을 느낀다. 나라의 시민으로 목사로, 친지, 동지로 단재장으로 참된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며 잘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어 안타깝다. 남은여생 최선의 삶으로 마무리하고 싶다"고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고 느낀 심경을 담은 글을 읽어 내려갔다. 제 3부에서는 축하와 친교로 케이크 커팅과 축가, 축사낭독 등이 있었으며 가족향장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모든 행사를 마쳤다.

월광 박영창 목사는 1915년 평안북도에서 고 박관준 이관선의 독자로 출생했으며 1939년 이징애와 결혼 1남3녀를 두었고 장남과 손자 등 3대 목사의 가정을 이뤘다. 그는 한평생을 교계와 교육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을 통해 헌신해왔으며 저서로는 "성웅 마하트마 간디"(일제하), "정의가 나를 부를 때"(신망에 출판사), "세이기가 와레오 요부도끼"(일본신교회출판사), "순교자 박관준 장로 대담기"(두란노출판사), "일본어에 대답하라"(아침향기출판사) 등이 있다. (이성자 기자)



스트레스와 우울증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강의하고 있는 안정영 코디네이터와 참석자들.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b> <b>서부(CA)교회안내</b>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영양)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금요 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23)488-7101, (F) (32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업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믿음생활(영-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626)691-0691, (F) (626)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solidrock@gmail.com	<b>남가주리더교회</b>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 요 예배: 오후 7:00 새 배 기도회: 오전 6:00(월-토) 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b>남가주사망의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1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10 (Holywave 영어예배) 금 요 예배: 오전 11:00(주일) 주일부 예배: 오후 1:1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tree St., Anaheim, CA 92801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 배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kc.org	<b>동문교회</b> 담임목사: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 배 기도회: 오전 5:30 수-금요 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7 www.egkpc.org	<b>중앙선교회</b> 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찬양예배: 오전 9:30 3부 영어예배: 오전 11:00 4부 영어예배: 오후 12:30 수-금요 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62)694-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서비스 가능), #B L.A., CA 90033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b>드림교회</b>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금 요 예배: 오후 8:00 수-금요 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St., Pasadena, CA 91106	<b>미중앙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영안부) 주일: 오후 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배 기도회: 오전 5:45(월-토) 금 요 예배: 오전 6:00(토) Tel: (310)749-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 90505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00(영양) 상인영어예배: 오전 11:00 대학영어예배: 오후 1:00 일일예배: 오후 1:00(오요일):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b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egkpc.org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 요 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b>브리지교회</b> 담임목사: 장세경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Tel: (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b>삼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버킹엄 18 세벽: 오전 6:30(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 www.samsungchurch.org Tel: (626)690-9800, Fax: (626)690-8044 501 S. Lido St., La Habra CA 90631	<b>새찬양교회</b> 담임목사: 변윤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www.newpraisechurch.org / ysbony@gmail.com Tel: (714)826-0100, Cell: (714)844-3377 6269 Ball Rd., Cypress, CA 90630	<b>새생명성교회</b> 담임목사: 김만수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00 성 경 공: 오후 7:00(금) 주일학교: 오전 11:00(월-토) 수-금요 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주일) 중, 고, 대: 오전 11:00(주일) Tel: (818)952-2449 13005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해(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아카데미 온누리 소망교회</b> 담임목사: 조묘숙 주일 예배: 오후 2: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 배 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626)533-1155 1741 South Baldwin Ave., Arcadia, CA 91007	<b>안디옥장로교회</b>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양) 주일 6부예배: 오후 8:00 새 배 기도회: 오전 5:30 수-금요 예배: 오후 8:00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laacp.org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b>얼빈인침례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배 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14
<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저녁 7:30 금 요 예배: 저녁 7:30 새벽 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b>월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은혜채플: 오전 8:30(월-토) 은혜채플: 오전 8:30(월-토)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org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rstone.org / e-mail: pastor@corn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4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조교회</b>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양)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양) 장미예배: 오전 10:00 수-금요 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i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9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

# “한국교회 이대로 가다간 무너집니다”

## 해운대서 ‘525 회개의 날’ 성령대집회

해운대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시작됐다.

25일 오후 5시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열린 ‘2014 해운대 성령대집회 525 회개의 날’ 성회는 말 그대로 통곡의 자리였다. 20만명의 부산·울산·경남지역 성도들은 쏟아지는 빗방울에 아랑곳하지 않고 2600여년 전 유다의 멸망을 예견하며 눈물 흘렸던 예레미야의 애곡은 심정으로 ‘작막한 성전’(에 1:1)이 되고 있는 한국교회를 부흥케하고 울부짖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이 함없이 무너진 유다 백성을 비웃었다(에 1:7) 조소거리가 되고 있는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다간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장탄식

과 회개기도로 터져 나왔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집회는 어린이 135명의 애국가 제창과 최홍준 부산성서화운동본부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경배와 찬양, 성령 임재를 위한 합심기도를 하면서 대회 분위기는 점차 무르익었다. 찬양 인도자는 “지금 내리는 비가 마치 한국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눈물 같이 느껴진다”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를 달라고 간구하자”고 호소했다.

대회의 절정은 십자가 복음과 회개를 강조한 김용의 순회선교단 대표의 설교시간이었다. 김 대표는 ‘회개와 소망’이라는 메시지에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교회가 살

고 민족이 산다”며 “끝없는 탐욕과 음란, 외식·자아사랑의 가면을 벗고 예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저를 좀 살려 주세요’라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 회개”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개는 가서는 안 될 불순종의 자리에서 진리 앞에 떨떨 떨면서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며 침몰하는 배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것”이라며 “회개야말로 죄인에게 주어진 유일한 희망인데 이걸 가로막는 것이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권을 휘두르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 종교지도자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구원의 복음을 가진 교회가 사명을 잃으면서 조국사회

가 영적 혼돈과 도덕적 타락, 물질만능에 빠지게 됐다”면서 “십자가 복음과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자세 아래 우리의 심장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실재가 되도록 힘쓰자”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박성규 부전교회 목사의 인도로 가정과 다음 세대, 한반도 통일, 열방과 세계선교를 위해 합심 기도했다. 이어 ‘해운대 선언’을 발표하고 한국사회와 교회의 죄악을 회개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사회개혁과 조국 근대화를 주도해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속화와 물질만능주의에 깊이 몰들어 버렸다”면서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슴 아픈 현실은 우리의 잘못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 7년 더 막아서 크리스천으로 나라 등 7개 분야에서 크리스천으로 나라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다.

# 사면초가에 빠진 한기총

## 세월호 망언·대표회장이 새 교단 설립 교계분열 부채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최근 교회 안팎으로부터 십자 포화를 맞으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한기총이 각종 논란으로 일부 교단의 탈퇴를 야기하는데 이어 교회 연합과 일치를 주도해야 할 한기총 대표회장이 또 다른 교단을 만들면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사회개혁과 조국 근대화를 주도해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속화와 물질만능주의에 깊이 몰들어 버렸다”면서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슴 아픈 현실은 우리의 잘못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 7년 더 막아서 크리스천으로 나라 등 7개 분야에서 크리스천으로 나라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다.

2010년 이후 한기총은 교회 분열이라는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 2012년 장로교 대표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예장 통합)가 금권선거 등을 이유로 한기총을 탈퇴한 데 이어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예장 합동, 예장 고신,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등이 한기총에 등을 돌렸다. 국내 유명 교단 상당수가 한기총에서 이탈한 것이다. 대표회장 선거 과정에서의 불협화음과 부적절한 이단 문제 대처 방식에 대해 한기총이 반성하지 않고 해법을 내놓지 못하자 주요 교단의 탈퇴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교계의 시각이다.

한국교회의 분열 해소에 앞장서야 할 한기총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는 26일 아예 새 교단을 설립했다. 홍 목사는 지난해 말 예장 합동을 탈퇴한 뒤 이날 경기도 부천천서교회(홍성주의 목사)에서 가칭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총회) 창립을 선언했다. 예장총회 교단에는 700여 교회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목사는 “지금까지 장로교회가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의 진두지휘를 받는 것처럼 여겨져 왔다”며 “이들 교단은 조금만 하자 있으면 이

단으로 몰아붙이는 교권주의자, 바리새파들과 다름없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새 교단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계 인사들은 홍 목사의 행동에 적잖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덕수교회 손인운 원로목사는 “주님은 교회가 하나 되라고 하셨는데 한기총 대표회장조차도 교단 설립에 나서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교회 분열은 어떤 이유로도 환영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도 “한국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려고 힘쓰는 마당에 새로운 교단을 만드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전 한기총 부회장이었던 조광작 목사의 세월호 관련 발언도 해프닝으로 치부해서 어렵다. 조 목사는 당시 한기총에서 열린 긴급 임원회의에서 “가난한 집 애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배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모두 백정”이라고 발언해 공분을 샀다.

한기총은 조 목사 발언의 파문이 커지자 23일 조 목사가 제출한 부회장직 사표를 수리했지만 비판 여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기총 홈페이지는 분노한 네티즌의 공격으로 23-25일 3일간 먹통이 됐다.

교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 정서와 한참 괴리되는 발언을 고위 임원이 버젓이 내뱉은 것은 한기총이 교회 내부뿐 아니라 일반사회와도 소통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 예”라고 꼬집었다.

# 예성 총회장에 이종복 목사 승계

## 93회 총회, 부총회장 송덕중 목사 선출

예수교대한성경교회(예성) 총회는 26일 경기도 안양 성경대학교 예성80주년기념관에서 ‘성경교회 선교 제107주년 연차대회 및 제93회 총회’를 개막했다. ‘영광스러운 교회, 풍성한 총회’를 주제로 2박3일간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총대를 포함, 목회자와 성도 등 76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예배에서 직전 총회장인 나세웅 목사는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나 목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겸손과 인내, 사랑을 품기는 인품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서로 용납해 모두 하나가 될 때 교단의 성장과 화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성의 형제교단인 기성과 나성 총회장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총회가 되기를 기원했다. 기성 총회

장 조일래 목사는 “기성과 예성은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속적인 교류로 연합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아람담게 받들자”고 축사했다. 예장 내신 총회장 최순영 목사, 일본 흘리대신총회장 나카니시 마사히로 목사도 축사를 전했다.

올해도 예성 총회는 대의원 자격 심리보고와 회원점명으로 개회차 상당히 늦춰졌다. 오후 9시쯤 시작한 회의는 임원선거와 제92회회 경과보고, 각부 결의보고, 예산안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총회장은 직전 부총회장인 이종복(장신교회) 목사가 자동 승계됐다.

부총회장에는 송덕중 목사(독일교회)를 선출했다. 송 목사는 윤기순 목사(구로중앙교회)와 3차례 접전 끝에 당선됐다.

# “거룩함을 회복하는 총회...”

## 하나님의성회 제63차 정총, 1천5백 총회원 ‘한 마음’

한국 하나님의성회 제63차 정기총회가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거룩함을 회복하자’(딤후4:5)라는 주제로 경기도 화성시 은혜와진리수양관에서 1,500여 명의 총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개회예배는 총무 김홍성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총회장 표순호 목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표 목사는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거룩함이 상실된 데 따른 한국교회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전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며 미래를 위해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를 강조하고 “이번 총회를 통해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원했다.

이날 설교는 미국 하나님의성회 부총회장 알튼 게리슨 목사가 “우리는 여기에 머무를 수 없다”(신 1:6, 7)라는 제목으로 “다윈주의, 혼합주의, 동성애 지지 등 그릇된 신앙과 세상의 유혹을 과감히 물리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경대로의 신앙을 견지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

할 것”을 전제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큰 부흥과 발전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기도로 ‘나라와 민생안정을 위해’, ‘교단발전과 개교회 부흥을 위해’,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차명찬 장로(전국장로연합회장), 서영조 목사(재판위원장), 김복희 목사(여교역자국장)가 각각 주제별 기도문 인도했다.

계속해서 일본 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마코토 호시이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지난 한 회기동안 교단발전을 위해 헌신한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2014년 제63차 총회는 교단 헌법

제 84조와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 의거해 △총회장 김용덕 목사 △부총회장 정부용 목사 △총무 엄하석 목사 △서기 진영갑 목사 △재무 주덕영 목사 △회계 황용연 목사가 각각 임후보해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선임됐다.

신임총회장 김용덕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준 총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리니 바르고 정직하게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목회현장을 만들어가며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이단 사이비를 철저히 배격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밝혔다.

(기사제공: 하나님의성회)

# NCKK-천주교-정교회 ‘일치운동’ 펼쳐

## 일부 교회 ‘신앙직제’ 반대 집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는 한국천주교회, 한국정교회와 함께 2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21길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한국신앙직제)’ 창립총회를 열었다. 한국신앙직제는 앞으로 분열된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한 운동을 펼친다.

한국신앙직제는 창립선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치에 예수 그리스도

의 구속의 은혜를 이 땅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교회의 선교행위와 다르지 않다”며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가 공식 기구를 통해 일치 증진과 선교협력으로 나가는 단초를 마련한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NCKK 총무 김영주 목사는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기보다 집단 이기주의가 앞선 모습을 보여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면서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가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장 김희중 대주교는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관심과 함께 배타적인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행동하며 우리뿐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한국신앙직제는 앞으로 목회자와 사제, 신학생뿐 아니라 평신도까지 일치운동에 함께할 수 있도록 교파간 만남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

으로 ‘함께 공부하기’ ‘함께 기도하기’ 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로마 가톨릭과 교황 정제 알리기 운동본부’(조직위원장 송준길 목사)와 광주겨자씨교회(나하수 목사) 등은 22일 한국신앙직제 창립 행사장인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앞에서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송준길 목사는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닌데도 가톨릭과 하나 되는 ‘일치’를 모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흑백보다 더 다른 기독교와 가톨릭’이라는 제목의 책자 22만부를 전국 교회에 배포했다.

# 피종진 목사, 총신대 목회부문 ‘대상’ 수상

## 선교/장재영 선교사, 교수/최은수 교수 등 3명 시상

피종진 목사가 지난 5월 20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신대학교에서 총신대학교를 빛낸 인물로 선정돼 목회부문 ‘대상’을 받았다.

총신 개교 113주년을 맞아 실시한 이번 시상식에서 총 3명에게 상이 주어졌다. 부흥사로 지금도 활발

히 활동하고 있는 피종진 목사에게 ‘목회부문 대상’이, 이스라엘에서 30여 년간 사역해온 장재영 선교사에게 ‘선교부문 대상’, 철저한 강의 준비와 열강으로 인정받는 최은수 교수에게 ‘교수부문 대상’이 각각 주어졌다. 총신대측은 “피 목사가 남

서술중양교회를 개척한 후 ‘선교, 화평, 축복’의 지표 아래 40년간 평화로운 목회 속에서 해외 27교회 설립과 지원, 매일 국내외의 300여 선교사와 미지리교회를 지원한 공로를 높이 샀다”며, “또 국내 5700여 교회와 해외 1000여 교회 등 7000여 교회의 부흥성회를 인도한 부흥사역의 공로도 크다”고 밝혔다. 피 목사는 “저와 사모, 아들 피세원 목사(미국 남가주사랑의교회 부목)가 모두 총신대학교 출신인데 학교측이 ‘

학교를 빛낸 인물’로 선정해준 것에 특별히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교회 부흥과 국내외의 부흥사역에 최선을 다하며 한국교회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피 목사는 CTS기독교TV, CBS TV, GoodTV를 통한 방송 선교를 펼치고 있고 40만㎡ 위에 세워진 기도원 ‘평화의 동산’ 개척과 설립에도 크게 기여했다.

(기사제공: 남서울교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b>벌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b>벤엘교회</b>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청소년부: 오후 10:00 (토, 일) 유년부: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b>샬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한국어예배: 새벽 6: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529-0900 / 0998(렉스쿨)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덴버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b>앵커리지영리문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엘파소영리문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51)542-0288, Fax: (251)542-9037 706 Wilmer Rd., Hortham, PA 19044	<b>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8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8-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cattle.org	<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ljesus.com
<b>타코마 삼일교회</b>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기도회: 새벽 6:00(토) 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b>타코마대생명교회</b>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한) 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9-1432 9702 E. B. St., Tacoma, WA 98445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수명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3)536-6675, Fax: (253)744-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b>템프장로교회</b>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수요예배: 오후 2:00(영/한)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kpcpac.com Tel: (480)726-018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4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800)643-4738, Fax: (860)674-0565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	<b>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영-국)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선교의 창 (8)

## 선교를 위한 거룩한 삼각구도 (The Holy Triangle)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현대선교는 선교사와 후원교회 그리고 선교본부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선교사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혁신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지금껏 해왔던 개인이나 개교회 중심의 아마추어(Amateur) 선교를 지양하고 전문적인 선교사 파송기관과 협력을 통해 좀 더 전문적인(Professional)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시대상황(Context)이 급변하고 있다. 익히 아는 바 선교지는 한국 문화권의 연장이 아니다. 목회도 아니다. 그런데도 오늘의 선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 안일하다.

使命)이란 누구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목숨이라는 뜻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맡은 일에는 목숨을 걸고 하라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명의식은 반드시 사명감에 선행된다는 것이다. 소명의식이 없거나 있더라도 망각하면 그의 하는 일은 사명감이 없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선교사역은 결코 낭만적이거나 쉽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선교사는 견디기 힘든 수많은 심리적, 영적, 육체적 환경적 압박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고한 소명의식이 결여되면 선교지에서 찾아오

교사의 몫이고 후원자는 단지 뒤에서 기도와 헌금으로 밀어준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사고의 틀은 옳지 못하며 선교를 위축시킨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하시되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신다. 성령이 선교의 주체이다. 그러므로 후원이란 말은 어폐가 있다.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각기 자기가 가진 옥함을 깨뜨릴 때 그 자체가 선교이다. 중요한 것은 전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와 후원교회와 일체감 있게 동역하는 것이다. 선교사가 갖는 아픔과 짐을 같이 나누며 함께 전진하는 것이다.

본부에는 유능한 실무자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상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한국선교의 가장 큰 아킬레스(Achilles)건은 선교본부 사역에 대한 인식도가 너무 낮음에 있다. 그 여파로 대다수 선교부들은 정보나 행정 그리고 재정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심점을 잡고 지휘를 해야 할 본부사역이 부실하니 선교가 짜임새 있게 될 리가 없다. 심장이 없는 몸통을 가질 수 있을까? 전라 사령부가 없는 전선은 어떻게 될까? 문제는 이 사역의 중요성, 특수성, 시급성을 알면서도 우선 순위에서 늘 뒤로 밀린다는 것이다.

세계화란 분업화, 전문화, 조직화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선교는 성령 안에서 세계화란 기능적 조합으로 엮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저것 할 만큼 인생이 길지도 않고 능력이 많지도 않기 때문이다.

선교가 별 것인가? “그냥 해외 나가 전도하고 봉사하면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다. 선교를 단순히 목회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것은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다. 문화가 다른 토양의 여러 족속을 선교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근시안적 선교를 지양하고 겸손함으로 오랜 노하우를 가진 서구 선교를 거울삼아 토착화, 그 방안 중 하나로 선교의 “거룩한 삼각관계(Holy Triangle)”라는 구조를 들 수 있다. 이는 선교사와 후원교회 그리고 파송단체가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한 틀 속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는 역경과 시련을 이겨낼 수 없다. 그래서 스피릿 목사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가능하면 목회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일단 선택했다면 생명을 걸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문화를 가진 자라도 망각해서는 안 될 일은 자신이 공적기관으로부터 후원과 파송을 받은 유기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선교부의 지시에 무조건 맹종해서 안 되지만 반대로 자신을 파송하는 지교회의 바램이나 선교본부의 전략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지휘부를 무시한 독불장군식의 선교는 성경적이지도 않으며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아무튼 선교사로 파송 받은 자는 영적 전선의 최전선에 있게 된다. 이때에 비록 낯선 곳에 홀로 있다 할지라도 망각해서는 안 될 일은 자신이 공적기관으로부터 후원과 파송을 받은 유기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선교부의 지시에 무조건 맹종해서 안 되지만 반대로 자신을 파송하는 지교회의 바램이나 선교본부의 전략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지휘부를 무시한 독불장군식의 선교는 성경적이지도 않으며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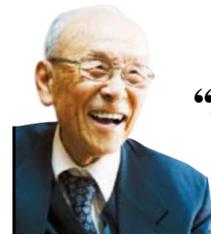
후원 교회(Sending Church) 일반적으로 본국에 있는 후원자나 교회는 선교를 이론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마치 경기장에서 목회자들은 뛰고 성도들은 스탠드에 앉아 응원하는 격이다. 선교란 전방에 있는 선

많은 후원교회들이 후원금 보내는 것 외에 너무 무관심 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필요 이상으로 선교사를 달달 부기도 한다. 매달 사역보고를 하라는 것이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전사가 밥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매달 승전보를 전하겠는가? 후원교회는 선교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편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때 선교사는 삼중의 스트레스 속에서 자기 페이스(pace)를 잃을 수도 있다.

선교본부 (Mission Headquarters) 선교본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를 신속하고 원활히 펼쳐질 수 있도록 선교사와 후원자 사이에서 교량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주된 목표는 사역의 극대화이다. 이를 위해 지혜를 짜고 힘을 모으며 여러 관계자와 연대한다. 본부는 결코 선교사를 다스리는 상급기관이 아니라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섬기는 행정 기관이다. 그 기능은 크게 인사, 교육, 재정, 홍보 분야로 나눈다. 이 업무는 전문성, 다양성, 창조성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선교

이상에서 우리는 거룩한 삼각관계(The Holy Triangle)라는 선교적 구도 속에서 기관별 실태를 살펴보았다. 첫째는 선교사들이다. 의외로 많은 선교사들이 ‘나홀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들은 소속 선교부가 아예 없는 자도 있고 설령 있다 해도 본부 자체 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후원 교회들이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전문성이 결여된 체 직접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 곁에 파송기관이 있음에도 의뢰하기를 꺼려한다. 그렇게 하면 내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선교본부이다. 한국에는 약 120개의 자생 선교단체가 있다. 그 중 전라본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곳은 1/10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부사역이 취약한 것은 가치 인식도가 낮고 지원이 약하기 때문이다. 하여튼 반세기를 훌쩍 뛰어넘은 한인 열방선교! 이제는 미래의 공동 과업을 위해 선교적 구도를 좀 더 짜임새 있게 실제화 해야 한다. 그것은 릭 워렌(Rick Warren) 목사가 주장하는 “목적지 이끄는 교회”처럼 선교도 사람의 소견보다 선교적 목적에 따라 거룩한 삼각관계의 유기적 조합으로 엮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와 후원교회 및 선교본부가 맞물리듯 서로 엇박자를 내기보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돌아갈 때 건설한 내일의 선교를 기약할 수 있다.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방지일 칼럼 (41)

## “본대로 들은 대로”

### 세계靴(세계화)

관세의 장벽이 국가 간에 없어진다. 화폐도 하나로 한다. 군사력도 감축 차차없이 한다. 국경도 없어진다. 세계화에서 모든 사람이 한 가정같이 살게 됨을 꿈꾸는 것 같다. 경제가 통일된다면 국경이 없어진다면 다름 없이 없어지니 쓸데없는 지출이 전연 없어진다. 그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지는가? 꿈만일까 현실로 되어질까?

그래서 국제화(國際化) 세계화(世界化) 시대를 부르짖는 듯하다. 그 시대를 동경하지 않는 이 없으리라.

세계화를 가장 벌써 실천하고 있음이 세계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때론 출몰하여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은 신발이 거의 같이 되어지는 느낌을 갖는다. 남자와 여자도 노인도 젊은이들도 아이들도 다같이 그런 말대로 운동화 농구화 이런 가벼운 신발이 통일된 느낌이다. 그렇게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신발이 하나로 되어지는가 세계화가 세계靴부터 시작되는가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써본다.

그 신발은 걷기도 좋고 편하기도 하다. 훨씬 많이 걸어도 피곤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발군이 신들매를 매고 가볍게 하여 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달리듯 발이 아프지 않게 단속한 신이 있어 아니라 발을 그렇게 단속하여 달려간다. 이제는 세계인이 다 신는 신발 세계靴인 이 신발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 걸어도 걸어도, 가도 가도 벗겨지지 않고 단단하게 내 발이 편하게 되어진 신발이다. 이 신으로 통일하자는 결의도 없지만 모든 사람이 다 신게 된 것을 보니 자연스럽게 세계靴인 신발을 알게 된다. 더운 지방 사람들은 나막신을 신는다. 줄줄 끌고 다닌다. 우리네는 질신을 신었다. 축산인 수렵으로 먹이를 구한 이들은 자연스럽게 가죽신을 신었다. 세계인의 신은 신이 다양도 하였다. 이제 누구의 제창한 바도 없건만 모든 사람이 다 편하게 생각되어 너무나도 다 이 신발을 신게 됐다. 운동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신는 세계靴가 되었다.

어떤 제창(提唱)도 없이 선전도 없이 이 신으로 우리 모두의 신발을 삼자는 운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세계靴가 되어졌다. 참된 세계화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니 편히 너도 나도 사용케 되는 것같이 세계화가 이렇게 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져야 참된 세계화가 될 것이다. 인위적으로 강요하다시피 하는 데는 세계화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세계화는 다 원하여 부르짖기는 하는데 강대국의 강요 같은 감이 때로 들리니 이도 약육강식 같이 되어지는가, 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느낌이 있게 됨은 강요당하는 느낌이라 그리 편하지 않다.

사해동포(四海同胞)란 말도 예로부터 즐겨 부르짖는 구호이기도 하다. 구호를 삼아도 동포로의 실천 실행이 없다면, 한갓 구호로 자기 자사 자리로만 일삼는다면 같듯이 더해진다.

참된 세계화는 한 하나님을 믿으며 한 주님의 속죄로 구속을 받는데 있을 뿐이라 사료된다.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루어야 실로 세계화는 세계靴를 신듯이 되어질 것이다. 나는 돌아다니면서 공황에서 혹은 목적지에 가서 모든 신발이 어떻게 이렇게 통해졌는가 생각해본다. 어떤 정치 어떤 사상의 운동에서는 아니었다. 자연스럽게 가장 편하니 이 신이 세계靴 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속죄로야 사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됨으로 한 피로 한 몸됨에서 시행 되어질 뿐이다.

주님 보내주신 성령 보혜사의 역사로 죄를 인식하는데서 속죄 사죄의 은혜 입어 비로소 아바 아버지를 다같이 부를 수 있을 때 세계화는 시행되어질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날 세계화는 자연스럽게 벌써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세계화의 역군들이다. 정치력으로도 군사력으로도 또 소위 사상운동으로도 경제운동으로도 세계화는 안된다. 주님의 사랑 되는 신앙운동으로야 세계화는 되어지는 것이다.

(1999년, 3권)

하나님 은혜 그 역사의 재발견  
**성지순례 선교여행**  
Pilgrimage Holyland Mission Vision Trip

**순례코스 일정** MISSION VISION TRIP

A 코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따라) 11박 12일  
B 코스: 터키 그리스 베트남 (바울의 전도에 따라) 11박 12일  
C 코스: 프랑스 스위스 독일 체코 이태리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 11박 12일

1) 멕시코 칸쿤(유카탄 반도) 8쿠마  
2) 페루 아마존(잉카문명)  
3)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4) 알라스카(에스키모) (인디언)

세계성지문화연구소 중동북아 선교회  
World Holy Land History Culture Institution & Mid East North Asia Mission

소장 권해수 선교목사  
Chief Rev., Jason H. Kwon

757 E. Main St W, 212 Lansdale, PA 19446  
TEL (267)372-8537 FAX (208)485-1013  
Email: jasonkwon777@yahoo.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LA GUEST HOUSE  
Olympic Blvd.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8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록교 기관, 기독교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LA: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 mail: LA@chpress.net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_____ 영문: _____
② 교회(기관) 주소	_____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_____ 영문: _____
⑤ 사택 주소	_____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
⑧ Web Add.	http://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_____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시시오 ④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세요



### 선교 편지

## 우크라이나

살랄! 우크라이나와 저희들을 위해 격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에서 보시면 아주 위험한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 안정하고 평안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힘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아무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디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게 여기게 하는 세상입니다.

늘 기도해 주시지만, 간략하게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사역과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오랫사에서 느끼는 팽목항의 고통

그저께 오랫동안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젊은 청년들이 무참히 숨진 사진과 함께 당시의 처참함을 생생히 볼 수 있었습니다.

숨진 청년들의 부모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진도 팽목항에서 울음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황은 전혀 다르지만, 부모님의 고통은 똑같을 것입니다. 꽃다운 젊은이들이 어이없이 무참히 희생되어가는 지구촌의 악의 세력을 보면

서 한탄스럽고 가슴만 찢어집니다.

우크라이나의 정국의 실체는

작년 10월에 키예브에서 시작한 시위는 우크라이나를 개혁하기 위한 순수한 국민들의 몸부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뼈 속까지 파고든 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전 구소련의 잔재에서 벗어나 서방사회 제재로만 가능하다고 여긴 젊은 청년들과 시민들이, 친러 야누코비치 정부를 반대하여 거리를 뛰쳐나왔습니다.

여기에 소수의 극단적인 극우주의(우크라이나인 아닌 다른 모든 민족을 배척하는 민족주의자)가 가담하여 희생자가 생겼고, 이는 구소련의 야망을 꿈꾸는 푸틴에게 좋은 빌미가 되었고, 결국 크림을 빼앗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절반까지 빼앗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푸틴은 크림 정도만 차지할 것이고, 동부 지역은 명분만을 가지고 차후로 미룰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정국의 실체는 절망과 무분별한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와 구소련의 영광을 꿈꾸는 푸틴주의자들이 아니라, 국가를 부정과 부패에서 건지고자 하는 국민들입니다.

2%의 힘  
우크라이나의 개혁주의 교회는 전체 인구의 2% 정도입니다. 대부분 침례교와 오순절 교회들인데, 지금 국가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의 미래가 너무 암담하지만, 우크라이나 교회의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크림의 고려인  
이제 러시아 땅이 되어버린 크림에는 4-5000명의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진작 어느 나라 국민이 되는 것보다, 당장 우크라이나에서 보내는 물이 끊겨 농사 걱정해야 하는 우리 고려인들이 안타깝습니다.

보도에는 크림에 있는 고려인 대부분이 러시아 합병에 찬성했다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영향이 전혀 없는 고려인들은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했고, 투표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고려인들은 힘을 좀 모으지 않는가?' 라고 옆에 있는 고려인에게 답답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누가 우리 말 듣는가~"

기도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1. 5월 25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를 통해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지도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2. 현재 할렐루야교회 예배당 구입 서류 진행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막혀 있어, 구입 절차가 복잡한 현 건물보다 다른 장소의 개인적인 건물을 구하는 중입니다.登記 서류상 문제가 전혀 없고, 복음의 전략적인 위치로 합당한 건물을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랫사에서 정한규 김혜경 선교사드립니다.

visionukraine@hanmail.net



### 선교 편지

## KMTI of KPM

선교동역자님들께

세상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세월호라는 배에서 일어난 참사로 인해 대한민국이 비통해 하는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금년도 선교소식을 드립니다.

### 1. 선교사 후보생 훈련

지난 3월 첫 주부터 선교사 후보생들의 3개월 합숙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을 책임지는 원장으로서 임무가 무겁지만 여러 선교사님들과 직원들과 힘을 합하여 좋은 선교사를 양성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3가정 24명의 후보생들도 녹록찮은 훈련을 새벽부터 밤까지 잘 견디며 또 기쁘게 임해주시어 감사합니다. 특별히 17명의 자녀들도 아예 근처 어린이 집이나 초등학교에 전학 와서 부모들과 함께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이미 2세 선교사들을 보는 느낌입니다.

몇 강의와 훈련은 인근의 침신대학교 선교훈련원과 연합함으로 경비도 절감하고 후일에 선교지에서 만날 사람들과 미리 친교를 한다는 유익도 있고 무엇보다 한국 교회에 선교훈련에서 협력의 모델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훈련생들은 5월 말에 훈련을 수료하고 6-7월

중에 파송예정지 답사를 다녀와서 8월 초에 최종적으로 선교사로 허임될 예정입니다. 모두 건강하게 좋은 선교사로 훈련되도록 기도해주시고.

### 2. 선교포럼 2014 준비

내년 2015년은 교단 선교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교단은 선교 60주년을 축하하는 선교

이 포럼의 주제는 "KPM 60년, 평가와 전망"입니다. 교단선교 60년을 평가하고 100년을 전망하는 중요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교단 교회들이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여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 주제를 연구하여 발표하는 책임도 맡았습니다. 제가 총무로서 그리고 주제발표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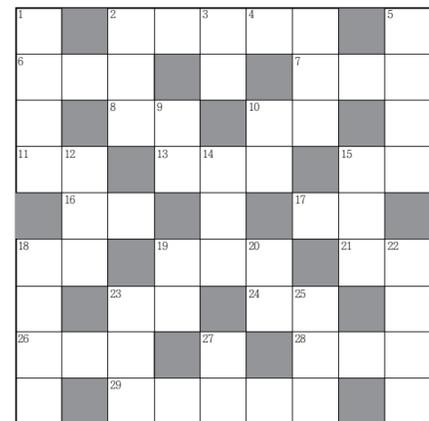
대회를 기획하면서 금년 8월 25-27일에 선교포럼을 개최하는데 제가 이 포럼준비위원회 총무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선교포럼을 준비하는 일에 참여한 적이 있어서 일이 낯설지는 않지만 교단 선교 60주년이라는 뜻 깊고 중요한 대회를 준비하는 포럼이라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공적인 포럼이 되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게 지원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남후수, 이성희 드림  
cbcnam@hanmail.net

## 십자말 • Cross Word (39)

###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 <가로 푸는 열쇠>

2. 아시아주 서부에 있는 최대 강이요, 에네통산을 둘러 흐르는 4대강 중의 하나(대상18:3).
6. 옆에 비터민과 철분이 많은 풀. 무쳐 먹거나 국으로 끓여 먹음(상식).
7. 가나안의 31성 중 하나로, 유대지파의 영유가 되었다(창38:20).
8. 먼 지방(속10:9).
10. 스톱(출36:4).
11. 울지 않음(눅20:22).
13. 문을 지키는 사람(렐40:16).
15. 아람어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지칭(갈4:6).
16. 쇠든 중 제일 작은 것(막12:42).
17. 빅토르(골2:15).
18. 요단강 동편 광활하고 비옥한 지방(수13:30).
19. 그리스도의 상징물(갈6:14).
21. 꾸어준 돈(시15:5).
23. 요단강을 중심한 일대(수17:5).
24. 펍 친하여 사이가 서먹하지 않음(잠18:24).
26. 시므온의 자손(민26:12).
28. 다불산에서 발원한 긴 강(사5:21).
29. 구브로섬 총독으로 지혜 있는 사람(행13:7).

### <세로 푸는 열쇠>

1. 인생의 험한 길을 비유(나1:10).
2. 학령이 안된 어린이를 위한 교육기관(상식).
3. 베나민의 아들(대상8:2).
4. 개의 새끼(상식).
5. 시편60편 제목에 나오는 지명(시60편).
9. 남을 찾아 봄(렐15:36).
10. 일정한 기간 또는 시기(예9:27).
12. 예루살렘 남서 편에 있던 산(렐31:39).
14. 슬기로운 사람(전10:2).
15. 하만의 아홉째 아들(에9:9).
18. 애굽의 제2왕조 제2대왕(왕하23:29).
19. 예브림 자손의 족장(민34:24).
20. 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상식).
22. 비단에 수를 놓은 듯 아름다운 산천, 한국?(상식)
23. 두 번째 소선서지(을:1).
25. 밀을 빵이 채로 쳐서 남은 찌꺼기(상식).
27. 군대를 편성한 행렬(출13:18).

### 십자말 정답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b>  <b>로마인교회</b>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8: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967(교육원) VIA DEI QUINTILI 32-30 00175 ROMA, ITALY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곡동 870-11(131-231)	<b>금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b>광주신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금요성가대회: 오후 9:00 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경광역시 북구 문암동 936-1번지	<b>동경중앙교회</b>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영양대회: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용산동 1670-1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8:00 www.seongsil.or.kr Tel: (02)418-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 520 (158-808)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13-26호	<b>수영로교회</b>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812-824)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찬양회: 오후 6:30 Tel: (82)2-842-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 520 (158-8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8:00 www.seongsil.or.kr Tel: (02)418-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 520 (158-808)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Tel: (82)2-786-6579, 새벽(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b>안암 제일교회</b>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가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산구 세곡동 146-7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강남 향원시 향원시 향원동 415 www.yangokg.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금요성가대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왕동 419-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중증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110(40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b>청주주요신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산구 세곡동 146-7
<b>밴쿠버빌리비아교회</b> 담임목사: 임건택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성가대회: 오후 7:30(30분) 금요성가대회: 새벽 7:30, 9:00 금요성가대회: 오후 7:30 www.pccov.org Tel: (604)564-5780, Fax: (604)56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b>브라질 서울교회</b>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9-010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b>브라질 새소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5: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저녁 9:00 7/14종교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예배: 오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b>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 스페니얼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시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 9. 사모의 사명 가꾸기(2)

사명이란 오직 한 가지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신학교에서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이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데 요즘엔 너무 많아 마치 도매상의 상품보다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상 교회마다 적임자를 구하려면 쉽지 않은 것이 목회자의 안타까움입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사명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의보감"을 집필한 저자 '허준'이 드라마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현대 목회자들에게 좋은 자극과 도전을 주는 드라마입니다. 그는 어려운 서자의 신분으로 태어나 한때는 방탕한 생활을 하였으나 그의 멘토가 되는 유의태를 만나 다시 의사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위기를 만나 어려움에 빠졌어도 오히려 기회를 삼아 일어나 마침내 어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때로는 가정을 뒤로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

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의 내용과 행동과 인격이 따라주어야 존경을 합니다. 조그마한 욕심덩어리라도 보일라치면 성도들은 겉잡아 알아차리고 교회를 떠나기 까지 합니다. 더 이상은 그런 꼴을 보기 싫어서 쪼매 앉아 차라리 명설교를 듣기도 하지요.

그런가하면 목회자들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자 이제는 조그마한 진실이 목회자에게 보여지지만 해도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한 상급제도가 생겨나게도 되었습니다. 과거엔 이런 행동은 목회자로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지금은 그런 목회자를 찾기 어려워진 이유로 조그마한 덕망도 높이 평가하여 상급을 내려야 하는 시대가 된 셈이지요.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믿음을 보기가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으나 참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를 찾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청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뿐 아니라 그곳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다니엘은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불의로부터 더럽히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친구들의 모함에 걸려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때에도 다른 수단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똑 같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으로 현대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점검해보아야 할 일입니다. 사모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실로 사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사역하던 도중 어떻게 변해 가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목회에

##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영예 뒤로 해야 사자굴에서 참된 안식 얻은 이 시대의 다니엘 필요

의 아들이 한때는 반항을 하기도 하였으나 자기 아버지의 진정한 충성을 보고 오히려 감동을 받게 되자 자신도 어이가 됩니다.

필자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목회자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봅니다. 목회자들의 고민거리인 가정의 문제를 운운하다 보면 어느덧 가정을 우선하게 됩니다. 물론 가정을 소홀히 하여 사모들을 힘들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올바른 자세는 어디까지나 부르신 이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곁에 있는 사모들이 정중한 태도로 내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허준에게는 실력을 인정받아 많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오기도 하였습니. 그 때마다 자신의 스승의 교훈을 기억하며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주위에서는 모두들 어리석은 자라고 비난을 하기도 하며 앞뒤가 꼭 막혀있는 자라고 주변 사람들이 매우 답답해 할 정도였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게 되었어도 그는 동의보감을 편찬하기 위해 명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는 오로지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마침내 그가 편찬한 책 '동의보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온 세계에 크나큰 유익을 주는 책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영예를 뒤로 해야 합니다. 수없이 싸고 들어오는 유혹들을 물리치도록 남편 목사님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요즘엔 평신도들이 명설교를 접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클릭만 하면 듣고 싶은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멀리까지 애써 가지 않아도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크리스천의 문화형태는 성도들을 기형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설교만 잘하면 성도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

쫓기는 것입니다. 시대 유행에 쫓기고, 문화에 쫓기고, 상식에 쫓기고, 변천되는 사회의 풍조에 휘말리게 되다 보면 정말 신앙의 힘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대세를 위해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용납해 주다보면 정의는 힘을 잃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쩌면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자세로 대우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는 자세였습니다. 그의 앞에 사자굴이라는 확실한 죽음이 있었어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사자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도 자신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의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천사들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자들의 입은 드디어 봉쇄되고 따뜻한 침대가 사자들에게 의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밖에서는 다리오왕의 슬픈 소리가 들려왔고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이들의 책재가 울려왔으나 그것이 결코 다니엘을 두렵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자굴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요 또 한 가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찢릴 것이 없이 무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다리오왕을 통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단6:26).

하나님은 이 시대에 현대판 다니엘을 찾고 계십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 월 변화의 삶(막9:1-13)찬204장

변화신에서 변형된 주님의 영광의 모습은 재림하실 주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성경의 신적권위를 말하면서 이 사건과 대조시킨바 있습니다(벧후1:16-17). 이것을 본 세 제자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고백이 증거합니다 그의 영광을 주목할 때 그의 형상으로 화하여 가는 원리(고후3:18)가 여기에 적용됩니다. 그 때 그들에게 일어난 극적 변

화는 그리스도안의 참 만족이었습니다. 장소와 난관이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의 임재를 접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었습니다. 둘째, 주님 중심한 생활로 변했습니다. 상황이 어찌하든 주님을 중심으로 거기에 안주하려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피난처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안의 영적 변화는 날마다 추구해야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합니다(롬12:1-2).

### 화 능력의 삶(막9:14-29)찬210장

능력의 삶은 믿음으로 되는 것을 본문은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째, 할 수 있으면 해달라(23)는 식의 부탁은 주님을 아주 경멸하는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일상생활 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크다하셨습니까. 구원도 믿음으로, 구원의 삶도 믿음으로, 성령충만도 믿음으로, 이웃사랑도 믿음으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함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무슨 상을 기대할 수

가 없습니다. 둘째, 최소한의 믿음일지라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만나이다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24)라는 이 믿음은 말씀에 달라붙을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주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 순간 성령이 일하여 진실된 믿음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성령이 일하심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개별적으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 수 믿음의 삶(막10:1-52)찬192장

소경 바디매오의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하는 건강한 믿음이었습니다(52). 그 믿음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를 무조건적으로 택하고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의 절대 믿음으로만 구원을 이룹니다. 기독교적 고백이 분명치 않은 자는 기초가 없는 사람이기에요 동합니다. 둘째, 거기에 자기를 던졌습니다. 방향을 정한 그는 어떤 장애가 물려와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길에 만나는 모든 문제는 그에 게로 달려갈 수 있는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셋째, 그는 소원을 내놓았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즉시 그의 마음에 품은 보화 같은 소원을 내놓았습니다. 네 믿음이 네 소원을 이룬다고 선언하실 때 그는 문제를 해결 받으셨습니다.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기이합니다. 주를 위한 소원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 목 기도의 삶(막11:12-26)찬184장

본문을 통해 기도의 어떤 교훈을 배웁니까? 첫째, 성전청결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는 자신의 성전됨을 주장하시며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보좌는 신자의 마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둘째, 무와 과나무가 열매를 내지 못할 때 저주하심으로 말라버리는 사건은 기도의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하나요? 1)문제의 산을 향하여 믿음으로 명해야합니다. 이 산을 바다에 들리어

던지라고 해야 합니다. 구체적 기도의 제목 곧, 생선, 알 그리고 떡 세 덩이를 달라고 구해야합니다. 2)믿어야합니다. 주님과 그의 약속과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위탁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는 일은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나야합니다. 3)용서해야합니다. 기도응답의 방해는 죄입니다. 그 죄도 하나님의 교통을 막는 용서치 않는 마음입니다. 영생의 흐름을 차단하는 거점들을 제할 때 기도가 응답됩니다.

### 금 헌신의 삶(막14:6)찬193장

그리스도인 헌신의 삶은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주는 본문은 헌신에 관한 무슨 교훈을 줍니까? 첫째, 베다니 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옥합의 향유를 주님 머리에 붓는 일은 헌신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장년 한 사람 1년 수입인 300 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깨뜨릴 때 주님은 자신의 장사를 기념한 제물로 받으시고 그의 이름을 궁창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주께 부어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둘

째, 구제보다 먼저가 주님이어야 합니다. 그때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고 허비한다고 화를 낸 가룟 유다는 나중에 주님을 파는 자가 됐습니다. 주님에 대한 헌신은 허비가 아닙니다. 주님에게 몸을 바쳐 산 제물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먼저 하나님나라를 구할 때 진정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되는 것(to be)은 무엇을 하는 것(to do)의 원동력입니다. 그 길로 갑시다.

### 토 말씀의 삶(막14:28-37)찬168장

재림을 준비하는 최상의 길도 말씀을 따르는 일이어야 합니다. 본문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31).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율법의 성취를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내용을 재림의 교훈에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의 권위성(완전성), 성경의 명료성(명백성) 그리고 성경의 성취성(종결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그의 백성의 반석이며 생명이며 양식이며 소망이며 빛입니다. 둘째, 말씀

의 주권을 따라가야 합니다(32).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일체이심으로 구체적인 재림날짜를 아실 텐데도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주권인정의 분입니다. 모든 것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고 그가 하신 것만 하셨다고 하신 성자는 전적으로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그만을 높이셨습니다. 신자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권위를 따라갑시다.

# “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자 ”

# 성령 대 부흥성회

성령으로 회개로 주님 맞을 준비하자  
알라바마 순복음교회는 성령 대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오순절에 임하였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각 영혼들 마음에 운행하며 놀린 자가 회복되고 갇힌자가 자유함을 얻고 상한자와 고통하는자는 고침받는 성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영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오니 부디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김진규 목사.

부흥성회 일정	
6월 9일(월)	저녁 7시
6월 10일(화)	새벽 5시, 낮 오전 10시, 저녁 7시
6월 11일(수)	새벽 5시, 낮 오전 10시, 저녁 7시
6월 12일(목)	새벽 5시

- 일 시: 2014년 6월 9일(월)~11일(목) 아침까지
- 장 소: 알라바마 순복음교회  
3331 Rucker Blvd, Enterprise AL 36330  
전화(334)347-1675, (334)475-9933(CP)



담임 김진규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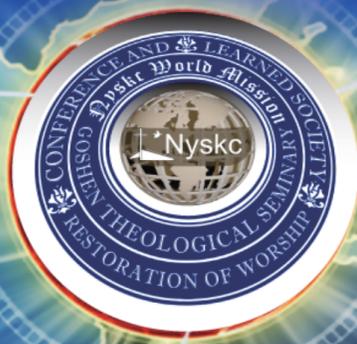
주관 : 알라바마 순복음 교회  
Alabama Full Gospel Church

후원 : 미주오순절연합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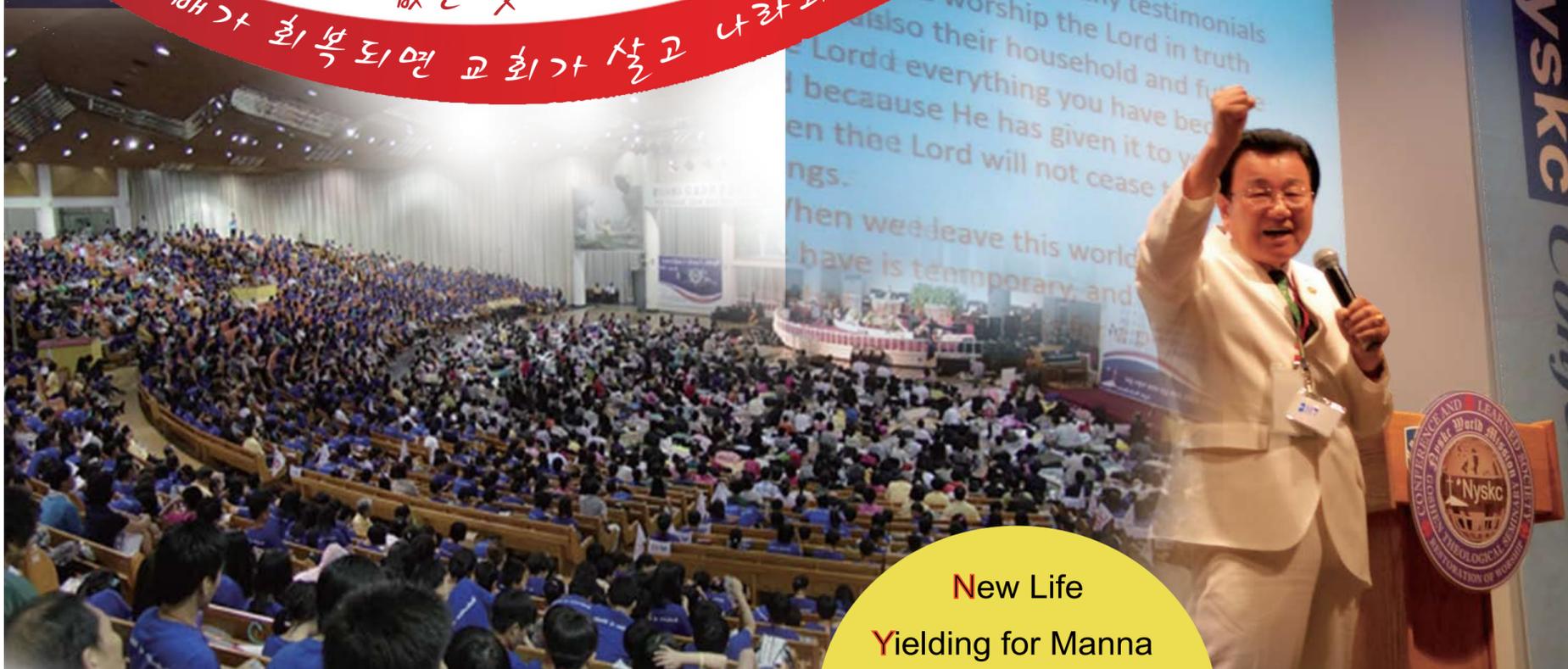
# Nyskc Family Conference 2014

## Houston, TX

### June. 30 - July. 3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있는 곳으로"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산다"



New Life  
Yielding for Manna  
Salvation for one by one  
Keeping for LORD's day  
Complete Offering

Nyskc World H.Q.  
조직위원회  
총재 : 피종진 목사(한국)  
대표회장 : 최고선 목사(미국)  
상임회장 : 디모데박 목사(일본)  
실무회장 : 이병완 목사(미국)

Nyskc Learned Society  
회복의 신학 학회  
학회장 : 윤사무엘 목사(미국)

행사 안내 및 등록문의 U.S.A  
대상 : Family & 목회자 부부  
등록마감일 : June 5, 2014  
참가비 : (교통비 별도)  
일반인 \$ 300, 목회자 1인 \$ 150  
T. 845.355.8829, 847.630.7308  
646.203.2644, 917.698.9965

휴스턴 텍사스 준비위원 임원 명단  
자문위원 : 이재호 목사(중앙장로교회)  
남부분부장 : 이인승 목사(새민음장로교회)  
부분부장 : 송영일 목사(한인장로교회)  
홍형선 목사(휴스턴순복음교회)  
총무 : 정용석 목사(버몬트제일연합감리교회)  
서기 : 유화청 목사(동산연합감리교회)  
교육분과장 : 이광재 목사(예담장로교회)  
홍보분과장 : 김욱기 목사(영락장로교회)  
국제협력분과 : 김준규 목사(코너스톤장로교회)  
임원 : 강주한 목사(휴스턴비전교회)  
조의석 목사(빛사랑교회)

**SH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Come, thou Burning Spirit, Come"  
(Act 2:2-4)  
"오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Nyskc World Mission*  
www.nyskc.org / e-mail:nyskcworldmission@gmail.com

"2015 Nyskc World Conference는 Philadelphia 에서"